

한국사연구회

제347차 월례발표회

자료집

일시 : 2023년 5월 13일(토) 14:00~16:10

장소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3층 대회의실 및
ZOOM(대면·비대면 동시진행)

ZOOM ID: 253 266 4989 / PW: v7XCh4

식 순

사회: 이경동(공주대)

제1발표 14:00~15:00

선조 초기 경연의 추이와 경향

-經筵 기록을 중심으로-

발표 : 권태석(경기대)

토론 : 나종현(서울대)

휴식 15:00~15:10

제2발표 15:10~16:10

18세기 후반 노상추의 함경도 진동만호 활동과 지역관방 정비 방안

발표 : 이강원(고려대)

토론 : 장정수(동북아역사재단)

목 차

선조 초기 경연의 추이와 경향 -經筵 기록을 중심으로-

- 발표문 : 권태석(경기대) 1
- 토론문 : 나종현(서울대) 15

18세기 후반 노상추의 함경도 진동만호 활동과 지역관방 정비 방안

- 발표문 : 이강원(고려대) 17
- 토론문 : 장정수(동북아역사재단) 37

선조 초기 경연의 추이와 경향 -經筵 기록을 중심으로-

권태석(경기대)

1. 머리말
2. 선조 초기 경연의 강화 추이
3. 선조 초기 경연의 공신삭훈 논의 경향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의 군신은 經筵에서 經史의 강론과 국정을 논의했다.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을 개국한 신홍사대부 계층은 경연으로 군주를 제어하고 성리학 이념 아래에서 현실 경영을 도모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개국기 경연은 世宗·成宗代를 거치며 학술적·정치적 기능이 정립됐다. 세종은 1420년(세종 2) 3월, 集賢殿을 설치하여 집현전 관원으로 경연을 전담시키고 입시하는 경연관의 수와 경연교재를 설정하는 등, 경연제도의 한 단락을 확립했다. 성종은 1478년(성종 9) 9월, 弘文館을 설치하여 집현전의 기능을 대체했다. 또한, 경연관직을 재정비하고 조강·주강·석강의 1일 3강체제를 확립했다. 성종대의 경연은 정치적으로도 기능했다. 2품 이상의 문·무대신이 특진관으로서 경연에 참여하였고, 승정원 주서도 참여해 진강이후 국정현안을 다루었다.

경연 내용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관찬 사서류와 경연에서 다루었던 啓聞, 上疏 등 공문서, 개인문집에 수록된 講義錄, 經筵日記, 年譜, 行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고의 경연기록들 또한 『宣祖實錄』과 經筵日記에서 참고했다.

경연일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李珣(1536~1584)의 「石潭日記」이다.¹⁾ 이이는 1568년(선조 2)부터 경연석상에서 奇大升(1527~1572) 등과 함께 을사위훈 삭제와 被禍人 신원 논의를 주도해, 신증론을 내세웠던 李浚慶(1499~1572) 등의 대신을 강력히 비판하며 위훈 삭

1) 이이의 「石潭日記」는 「經筵日記」라는 이름으로 『栗谷全書』 권28~30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활용한 「石潭日記」는 『大東野乘』 권14~15에 수록된 본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름을 「經筵日記」라고 하지 않은 것은 김성일의 『經筵日記』와 그 명칭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또한, 최영성, 2008, 「『석담일기(石潭日記)』의 필법과 율곡의 경제사상」 『유교문화연구』 13 : 2009, 「『석담일기』의 역사의식과 서술방법」 『율곡사상연구』 18. 논문에서 말한 바, 「경연의 내용보다는 당시 정계의 동향과 정치 쟁점이 핵심을 이루고 있어 경연일기라고 명명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존중하여 본고에서도 이하로부터는 본문 및 각주에 「석담일기」로 표기했다.

제와 피화인 신원을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이이의 「석담일기」 연구는 이이의 사상적 기반에 집중하여, 先王之法 중심의 정치 체제 구축을 위한 大臣論과 經世論, 재앙 사례를 통한 군권 견제 등, 정치 문제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²⁾ 그러나 이이의 대신 비판을 ‘새로운 사회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귀결시켜 당시의 정치 갈등을 단순화했다. 柳希春(1513~1577)의 『眉巖日記』 연구는 일기에 기록된 유희춘 개인의 관직이동과 교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 사회의 연방사회적인 특징을 구조화 하였고, 경관·외관직 간 상이한 포퓰 적용기준과 양반 관료의 관직생활을 조명했다.³⁾ 하지만 양반 관료의 일상생활에 집중하여, 해배 이후의 경연관 입시시기를 분석한 연구 성과는 미진한 채로 남아있다. 金宇顛(1540~1603)은 남명의 문인이면서 이황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 이이와 함께 16세기 조선 정치사 이해의 필수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우옹 개인 혹은 김우옹의 「경연강의」를 주제로 한 연구는 철학 또는 학문학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종래의 연구 성과에 대한 반성으로 김우옹의 학술적 소양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이이의 사례만큼 충분히 진전되지는 못했다.⁴⁾ 金誠一(1538~1593)의 『경연일기』는 진강 내용, 조정 내외의 문제와 대응, 士類 간 대립, 계북 절차 등 종합적인 경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선조 초기의 경연 운영과 국정 운영 면에서 추가적인 대조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지만, 1570년(선조 3)~1573년(선조 6) 3년의 짧은 시기를 다루며, 현재도 원사료의 착간이 많고, 해제 외에 『경연일기』를 주제로 한 독립적인 연구 성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⁵⁾

본고는 이상과 같은 한계점과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선조 초기 경연석상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을사위훈을 삭제하고 피화인을 신원하는 문제를 통하여 당시 경연의 추이와 경향을 조명했다. 경연은 성종대 정치적 기능이 강화된 이래로, 국왕의 정책결정을 보조하는 기구였으며, 군신이 경연의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는 장소였다. 성종은 유학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호학군주로서 주도권을 장악했다.⁶⁾ 중종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기묘사림을 소거한 이후, 경연을 주도할 수 있었다.⁷⁾ 선조는 1567년 15세의 나이로 즉위한 뒤로부터, 1577년(선

2) 김경래, 2019, 「栗谷 李珥의 大臣論과 위기의식 -『經筵日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8 ; 김영두, 2009, 「소통의 시각에서 본 을곡의 정치활동 -을사삭훈(乙巳削勳) 논쟁의 의미-」, 『역사비평』 89 ; 김우형, 2009, 「『경연일기(經筵日記)』에 나타난 을곡의 재이관(災異觀)」 『울곡학연구』 18 ; 신하령, 2009, 「『경연일기(經筵日記)』를 통해 본 을곡(栗谷)의 당대 인물평 -“졸기(拙技)”를 중심으로-」 『울곡학연구』 18 ; 오향녕, 2014, 「문치주의와 대청적 경세론에서 본 『경연일기(經筵日記)』」 『울곡학연구』 28 ; 유성신, 2011, 「『석담야사·일기』에서 『경연일기』까지 간행과정의 사상적 추이 연구」 『한문고전연구』 22 ; 최영성, 2009, 「『석담일기(石潭日記)』의 역사의식과 서술방법」 『울곡학연구』 18.

3) 전경목, 2015,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 연구 -해배 직후 시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3 ; 정영민, 2009, 「眉巖 柳希春의 經筵活動 研究 -『眉巖日記』에 나타난 經筵活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광현, 2020, 「『眉巖日記』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근무평가와 인사이동」, 『고문서연구』 57.

4) 이석규, 2015, 「동강 김우옹의 군주 중심의 경세론」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 이인복, 2021, 「金宇顛의 『經筵講義』의 저술과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99, 213쪽.

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2010, 『한국학자료총서 42 -학봉 김성일 경연일기-』, 韓國學中央研究院, 2쪽.

6) 송웅섭, 2013, 「朝鮮 成宗의 右文政治와 그 귀결」 『규장각』 42, 13쪽.

조 10)까지 경연에서 을사위훈을 삭제하고 피화인을 신원하는 문제를 수용과 거부로써 완급을 조절했다. 1570년(선조 3)은 삭훈과 신원 요청이 최고조에 달해, 중앙의 삼사와 외부의 宗親, 外官, 遺逸의 山林이 승啓와 上疏를 통해 선조를 압박했다. 삭훈과 신원 문제는 선조와 사류 양측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선조는 정통성을 강화하고 경연에서의 우위를 장악하기 위해, 사류는 위임론에 입각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조됐다. 을사위훈의 삭제와 피화인의 신원을 중심으로 양 측의 국정 주도를 향한 첨예한 대립은 1577년 12월, 경연에서의 공론을 따르고 왕대비 仁聖王后의 遺旨를 받든다는 명목 아래에서 위훈삭제의 뜻을 담은 교서를 반포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전개 양상을 실록 자료 및 경연일기 기사로써 보강하여 경연석상에서 위훈삭제와 신원 요청 및 수용·거부의 전개과정을 조명하고 선조 초기 경연의 추이와 경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1장에서는 선조 초기 경연의 특징을 경연일기들과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된 경연 교재 및 주제의 비중을 통하여 당시 진행되었던 경연의 추이를 살폈다. 2장에서는 을사위훈 삭제와 피화인 신원 문제를 선조와 사류, 특히 기대승과 이이의 주장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당대 경연의 정치적인 경향을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김성일의 『경연일기』 기사를 포함하여 사료 면에서의 확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 선조 초기 경연의 강화 추이

선조 초기 경연은 15세의 나이로 즉위한 선조를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1565년(명종 20) 9월 이전까지 명종은 後嗣였던 順懷世子의 사망 이후 세자 책봉을 미루고 있었다. 명종은 사망한 순회세자를 대신할 후사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 河城君이었던 선조를 후사로 낙점했다.⁸⁾ 1567년(명종 22) 6월, 명종은 병환이 악화되어 흥서함에 따라, 명종의 양자로 입적되어 繼後王으로서 왕위를 계승한 선조는 방계승통이라는 왕조 정통성면에서의 약점을 지니게 됐다. 선조는 자신의 불완전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효 사상을 강조했다. 선조 초기 경연의 추이는 이와 같은 왕위 계승 관정에서의 불완전한 정통성 문제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효 사상은 성리학 세계에서 왕조 단위로서는 정통성을 확보하고 사회 단위로서는 위계와 계급을 확립하여 군신을 忠으로써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⁹⁾ 선조는 부족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經書를 중심으로 효 사상에 바탕을 둔 성리학적 소양을 육성해나갔다. 선조 3년까지 경연에서 주로 활용했던 교재들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1567년(선조 즉위년) ~ 1572년(선조 5)에 활용된 경연교재¹⁰⁾

7) 윤훈표, 2013, 「15세기 말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 경연의 변모와 그 의미」 『역사와 실학』 51, 100~104쪽.

8) 『大東野乘』 「石潭日記」 상, 明宗大王二十年.

9) 정일영, 2017, 「조선시대 유교적 상장례 정착으로 보는 ‘유교화’과정 -연산군·중종대 상기(喪期)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0, 142~143쪽.

10) 『宣祖實錄』 권1~권4 ; 『經筵日記』 책1~책35 ; 『大東野乘』 「石潭日記」 상, 隆慶元年丁卯~隆慶六

	소학	대학/연의/후문			논어	맹자	중용/후문		시경	서경	예기	근사록
1567	0	5	0	0	0	0	0	0	1	0	3	0
1568	3	0	0	0	8	0	0	0	0	0	0	0
1569	0	1	0	0	8	2	0	0	0	0	0	3
1570	0	0	1	2	0	1	3	0	1	0	0	0
1571	0	0	3	0	0	0	2	2	0	0	0	0
1572	0	0	1	0	0	0	0	5	0	5	0	0
미상	0	0	1	0	0	5	0	1	0	1	0	0
계	3	6	6	2	16	8	5	8	2	6	3	3

<표 1>은 1567년부터 1572년까지 경연에서 활용한 교재들을 표로 나타난 것이다. 수치상 가장 많이 활용된 교재는 『論語』와 『大學』(『大學衍義』, 『大學或問』을 포함)이었고 『中庸』(『中庸或問』을 포함), 『孟子』, 『小學』, 『近思錄』, 『禮記』, 『詩經』, 『尙書』 등이 차례로 활용됐다. <표 1>에서 주목할 사실은 교재들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어있다는 점이다.

먼저, 『논어』, 『예기』는 주로 1567년부터 1569년까지 주로 이용됐다. 『예기』는 당시 許曄의 추천으로 경연을 맡았던 이황의 주도 아래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됐다. 이황은 『예기』를 강론하며 예학을 정립하고 이에 의거한 상례 집전을 강조했다. 선조는 즉위 당시 德興大院君의 상기를 마치고 河東府夫人의 상을 치르고 있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한 채로 즉위했다. 이로 인하여 선조는 별도로 私親에 대한 致奠을 올렸다. 이황은 이에 대하여 『예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大統과 사친 사이의 친소위계 설정을 송 인종의 사례와 함께 설명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¹¹⁾ 1567년 11월 16일 석강에서는 4일의 내용과 관련하여 喪服四制를 진강하였고 19일 석강에서는 기대승이 古禮에 의거한 상례 절차 집전과 효가 곧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¹²⁾ 선조 8년(1575) 仁順王后의 대령에서 선조가 피를 토하면 서도 成服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¹³⁾과 후술할 삭훈과 신원 문제를 仁順王后 사후 2년 뒤, 仁聖王后의 재가를 받아 처리했던 사례에서 선조가 철저한 집례를 통한 효 사상의 실천으로써 재위 초기 불완전한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기』와 『논어』의 활용은 前朝의 사례를 통하여 선조 시기의 미해결 과제들에 대한 해결을 보조했다. 군신 사이의 절의와 관련된 사항¹⁴⁾, 신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¹⁵⁾, 『논어』의 삼년상과 관련된 사항¹⁶⁾ 등 선조 즉위년에 핵심을 이루었던 예학 및 효 사상을 포함한 일반 정치 및 군신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 다루어졌다. 특히 1569년 윤6월 24일 주장은 선조의 효 사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기대승이 『논어』의 삼년상 해설에서 선

年壬申.

11) 『宣祖實錄』 권1, 선조 즉위년 11월 4일(을묘).

12) 『宣祖實錄』 권1, 선조 즉위년 11월 16일(정묘).

13) 『宣祖實錄』 권9, 선조 8년 1월 6일(병오).

14) 『宣祖實錄』 권2, 선조 1년 6월 9일(정해) ; 『高峯全書』 「高峯論思錄」 상, 4월 5일.

15) 『宣祖實錄』 권3, 선조 2년 6월 4일(병자) ; 『高峯全書』 「高峯論思錄」 하, 6월 4일.

16) 『宣祖實錄』 권3, 선조 2년 윤6월 24일(병인) ; 『高峯全書』 「高峯論思錄」 하, 24일(윤6월).

조의 사친에 대한 치전은 정당한 행위가 아님을 주장했다. 그리고 주공 이래의 古禮에 근거한 집례만이 대통을 이은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당부했다.¹⁷⁾

1570년(선조 3)부터는 본격적으로 위훈을 삭제하고 피화인을 신원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연에 있어서도 다양한 교재들이 활용됐다. 이 시점부터는 『예기』가 별도로 교재로서 활용되지 않았고 경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던 『소학』에 대한 강조 또한 그 언급되는 빈도가 확연히 감소했다. 이것은 조광조의 추승이 완료됨에 따라 『소학』으로 대표되는 기묘사류의 가치를 선조에게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선조의 나이가 18세 전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소학』과 같은 기초 교재를 통한 강습이 필요 없다는 점 또한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예기』의 경우는 약간의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학을 중시했던 이황이 1569년 3월에 사직한 이후로 이황을 대체할 만한 예학에 밝은 인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이후로 경연에서 『예기』를 교재로 활용했던 빈도가 줄었고, 『예기』의 부족으로 인해 이를 연구하는 사대부가 적어, 풍저창의 종이로 반사하도록 독려하는 전교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¹⁸⁾

1572년(선조 5)부터는 『書經』의 진강의 수가 증가했다. 『서경』은 유희춘이 ‘강학과 치도에는 절실한 부분이 아니지만, 부득이하다.’라고 평가내린 것¹⁹⁾에 비해, 당시 이이를 주축으로 하는 사류가 주장했던, 대신위임에 근거한 三代之治를 가장 잘 서술하고 있는 교재였다.²⁰⁾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에 적용한 선조의 정무집행의 典範을 제시하고 심화를 위해 이용됐다.

선조 즉위년부터 실시된 경연을 『선조실록』에 근거하여 그 경향을 분류해보면, 己卯士禍, 乙巳士禍, 丁未士禍 등 사화의 시비를 판별하여 피화인을 신원하고 위훈을 삭제하는 시비판별적 성격과 관료들의 遷職과 遞職을 포함한 중앙 행정 및 국정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정무집행적인 경향, 산림으로서 은둔하고 있는 이들을 등용하거나 경연에서 정업소 효과와 같은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선조와 대립하는 권력추구적인 경향 그리고 金鑑(1504~1569)의 조광조 비판론으로 대표되는 대립 경향으로 구분된다.

선조 즉위년 이래로 실시된 경연들은 시비 판단에 주안점을 두었다. 경연이 신료들이 중심이 되어 군주의 독단을 제어하고 先王의 법도에 따른 이상적인 정치를 위해 주도했다는 견해를 통해서 선조 초기 경연의 진행을 고찰해보는다면, 『소학』 이후 『대학』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학을 익히고, 『논어』와 『맹자』, 『중용』을 통해 보강한 이후 『詩經』·『書經』·『易經』의 3경을 학습하는 전통적인 학습 순서에서 벗어난 『예기』의 이른 실시는 다소 이질적이다. 이것은 당시 신진사류가 위훈을 삭제하고 피화인을 신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학을 통하여 선조의 결정을 제약하기 위해서라고 확대해석 할 수 있다. 후술할 홍문관이 선조에게 올린 6강령 또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신진사류가 군주의 행동 모범을 세우는 것에서 나아가, 선조 시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경연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선조가 경연석상에서 삭훈과 신원 문제에 대한 거부의를 밝히고 홍문관 6강령에 대해 비판적인 비답을 내린 것을 신진사류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연결시킬

17) 『高峯全書』 「高峯論思錄」 하, 24일(윤6월).

18) 『宣祖實錄』 권5, 선조 4년 10월 14일(계묘).

19) 『宣祖實錄』 권6, 선조 5년 12월 16일(무진).

20) 강경현, 2022, 「조선시대 經筵에서 『尙書』 강독의 의미 -조선 전기 경연 자료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51, 117~119쪽.

수 있다. 先王의 遺旨를 後嗣의 몸으로서 감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선조의 핵심 논거였다.

정리하자면, 선조 초기 경연의 강학 추이는 1572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적응기로서, 대통을 승계한 계후왕으로서의 정체성 및 정통성 확보를 위해 『예기』와 『논어』를 중심 교재로 활용하였고, 전통적인 학습 순서에 따라 『대학』, 『맹자』, 『중용』 등을 익혔다. 1572년 이후는 활동기로서, 성리학적 전범에 따른 이상적 통치를 위하여 사류세력에 의해 『서경』 등이 실천 매뉴얼로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사류는 삭훈과 신원 문제를 상기한 바의 교재와 내용을 바탕으로 ‘군주 길들이기’를 시도했다. 선조는 조광조 등의 기묘사류는 신원하고 을사위훈 삭제에는 반대하는 승인과 거부의 완급조절을 하며, 경연 내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3. 선조 초기 경연의 공신삭훈 논의 경향

1) 기묘사림 추존 논쟁

본 절에서는 선조 즉위시점부터 선조 7년 이전까지 을사위훈을 삭제하고 피화인에 대한 신원을 합의하는 과정을 연대기적 순서로써 서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조광조의 신원 및 추증 논의를 두고, 경연석상에서 金鑑(1504-1569)가 기묘사류를 대표하는 조광조를 비판하면서 선조 초기의 갈등이 발생했다. 이를 비롯해 을사위훈 삭제와 신원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선조 초기 경연이 갖는 정치적인 경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시비를 가려 삭훈과 신원 문제가 모두 종식된 것은 1577년(선조 10)의 일이지만, 1574년(선조 7) 6월 6일 선조가 비답을 통하여 ‘이미 모두 말했고 합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에 관하여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사실상의 종식을 고했다.²¹⁾ 따라서 삭훈과 신원 문제는 선조가 즉위한 1567년부터 1574년 사이에 가장 많이 논의됐다.

15세로 즉위한 선조는 仁順王后의 수렴청정 아래에서 경연에 참여하며 정사에 적응했다. 1567년 9월, 영의정 이명이 경연에서 처음으로 피화인의 신원을 요청했다. 이로부터 11월 인순왕후가 직접 이에 개입하기 전까지 경연에서는 지속적으로 위훈 삭제와 신원이 요청됐다. 특히, 경연관으로서 입직한 기대승은 적극적으로 기묘피화인을 신원하고 추송할 것을 요청했다. 1567년 11월 5일, 인순왕후가 지속적인 위훈 삭제와 신원문제에 대하여 신원 요청을 유보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사류에 수용되지 않는 않았다. 더욱이 선조가 인사 발령에 대한 결정을 제외한 국정운영의 제반 사항을 인순왕후에게 일임하는 등, 삭훈과 신원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기대승은 경연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시비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²²⁾

1568년(선조 1) 2월, 인순왕후가 수렴을 철회하는 전후로 선조는 본격적으로 경연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었다. 선조가 자신의 의견을 두드러지게 제시한 시점을 분명히 확인하기

21) 『宣祖實錄』 권8, 선조 7년 6월 6일(기유).

22) 『宣祖實錄』 권1 선조즉위년 11월 4일(을묘)·권2, 선조 1년 1월 12일(임술).

는 어렵지만, 1567년 12월부터 제기된 金明胤(1493~1572) 처리 문제에 대하여 兩司의 습啓에도 미온적으로 대하는 등 거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이 시기는 인순왕후가 선조를 대신하여 수렴하고 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앞서 김명운 탄핵의 연기를 요청했던 인순왕후의 영향이 일부 남아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²³⁾ 7월, 홍문관에서는 時君으로서 수행해야 할 立志, 齊家, 尊正統, 正朝廷, 定是非, 禁淫祀 등의 6조목을 올렸다.²⁴⁾ 6조목의 내용은 성학군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부분을 아뢴 것이지만, 즉위 초부터 줄곧 제기해오던 위훈을 삭제하고 피화인을 신원하고자 하는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조는 ‘정조정’ 이하의 3개 조목에 대하여 ‘注擬는 한결같이 그 청탁을 따른다고 한 것은 銓曹를 지적한 것이니, 전조에게도 책임이 있다’(정조정 조목에 대한 반론), ‘南袞은 중종대의 대신이기에 그의 관직을 추삭하는 것은 미안하다’(정시비 조목에 대한 반론), ‘정업원은 선왕의 후궁들이 거처하는 곳이므로 선조도 또한 혁파하지 않았으니, 지금 혁파하는 것은 미안하다.’(금음사 조목에 대한 반론)라고 비답을 내려 조목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²⁵⁾ 이 비답은 사류의 신원 요청에 대하여 선조가 거부 의사를 표명한 첫 번째 사례였으며, 선조가 孝 사상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었다.

선조와 신진사류 간의 대립은 조광조의 신원과 추증을 논하던 시점에 두드러진다. 즉위 직후로부터 조광조가 추증되었던 1568년 4월 전까지 『선조실록』에서 확인된 32차례 경연 가운데, 16차례에 걸쳐서 꾸준히 신원과 추증이 요청됐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宋麟壽(1499~1547), 林亨秀(1504~1547)등을 비롯한 피화인들이 차례로 신원되었고, 김명운이 삭탈되는 등 일단의 성과를 거뒀다.

기대승이 중심이 되어 조광조와 기묘사림의 추증을 요청했던 신진사류는 경연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삭훈과 신원을 요청했다. 선조는 이 삭훈과 신원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해 4월, 선조는 金鑑가 조광조를 위시한 기묘사림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함에 따라 신진사류계층이 이에 반발하는 정치적 대립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개가 조광조를 비판하기 이전까지 신진사류는 선조와의 경연에서 『소학』을 강조하여 조광조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己卯士林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다.²⁶⁾ 경연에서는 앞의 <표 1>과 같이 『논어』를 주로 활용했으나, 『소학』은 기묘사류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었다. 기묘사림의 신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기대승은 스스로를 기묘사림의 후예로서 자처하여, 기대승과 그를 위시한 현재의 신진사류 계층의 정치적 위치를 재확인하는 정치적 사업이었고 김개의 조광조 비판론은 기대승을 포함한 신진사류의 근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²⁷⁾

김개의 조광조 비판론은 단순히 조광조와 기묘사림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었다. 김개는 1569년(선조 2) 6월 조강에서 ‘지금의 선비들이 함부로 시비를 말하고 대신을 훼방하고 있어 권장해서는 안 되며, 기묘년의 일은 부박한 선비[浮薄之士]들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말을 올려 기묘사림을 평가절하하고, 당시 이이 등의 신진사류 등이 이준경, 홍담, 김개 등의 대신들을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이는 을사위훈의 삭제를 통한 명분 正立을 강조하였

23) 『宣祖實錄』 권1, 선조 즉위년, 12월 2일(임오).

24) 『宣祖實錄』 권2, 선조 1년 7월 12일(기미).

25) 『眉巖集』 권6, 「日記」, 戊辰下.

26) 『宣祖實錄』 권1, 선조 즉위년, 11월 5일(병진).

27) 나종현, 2023, 「명종말~선조초 고봉 기대승의 정치활동」 『한국학논총』 59, 138~152쪽.

으며, 적극적으로 경연과 상소를 통하여 을사위훈을 삭제하고 피화인을 신원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같은 이이 등 신진사류의 압박에 선조는 여전히 선왕의 법도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명분 아래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또한 김개의 조광조 비판론은 앞서 발생했던 文昭殿 논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소전에 인종과 명종의 附位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준경 등의 舊臣과 기대승, 이이 등의 신진사류 사이의 갈등이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신진사류는 의리론을 바탕으로 구신세력을 격렬히 비판하였고, 양자 간의 논박 끝에 신진사류의 입장이 수용됐다.²⁸⁾ 이에 불만을 가진 구신세력의 입장을 김개가 조광조 비판론으로서 드러낸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이 등의 경연일기에서 이준경이 김개를 옹호한 것과 당대 구신 세력인 김개, 홍담 등을 일제히 비판했던 것 또한 납득할 만한 것이 된다.²⁹⁾ 더욱이 이이는 이전시기의 사화 이래로 대신세력에 의해 또 다른 사화가 촉발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신 세력과 신진사류의 격화를 종식시키고 구신 세력의 힘을 꺾어야 할 위기감도 갖고 있었다.³⁰⁾

이와 같은 양자 간의 대립 속에서 대간과 홍문관, 승정원이 김개의 門外出送을 요청했다.³¹⁾ 이에 대해 이준경은 김개의 조광조 비판이 조광조 이하의 사류 전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선조가 김개의 문외출송 요청을 수용하면서 신진사류가 중심이 된 체로 마무리됐다.³²⁾ 그리고 조광조 이하의 문인을 자처하는 이들 신진사류가 경연을 통해 당대 국정 운영을 장악하는 한 단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같은 신권 우위의 양상이라고 할 정국 아래에서 선조는 부족한 정통성을 확립하고, 신진사류를 중심으로 주도권이 기울어진 정치적 쏠림 현상을 타개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주된 대상은 신진사류가 주축이 되어 요청했던 을사위훈을 삭제하는 문제였다.

2) 위사공신 삭훈 논의

본 절에서는 1570년(선조 3) 이래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을사위훈 삭제 논의를 경연기록을 통해 그 전개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김개의 문외출송 이후, 南袞(1471~1527)의 삭훈 또한 진행되었다. 이준경은 남곤의 삭탈과 함께 尹元衡(?~1565), 李芑(1476~1552)의 삭탈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명종대의 대신이었던 자로서, 이들의 삭훈은 명종의 결정을 후사로서 재평가 하는 일이 되었다. 이는 방계승통과 문소전에 인종과 명종을 附位하는 일, 등 당시 불안정한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던 선조에게 있어, 새로운 문제를 낳는 일이었다. 따라서 선조는 이 사안의 처리를 부담스러워했다. 선조는 ‘남곤의 일은 경연에서 자주 언급했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조

28) 김정신, 2004, 「선조대 문소전 논쟁과 봉당」 『한국사상사학』 22, 133쪽 ; 나현중, 위 논문, 141~142쪽.

29) 『沙溪先生全書』 권9, 松江鄭文清公【澈】行錄 ; 『大東野乘』 「石潭日記」 상, 隆慶三年己巳 ; 『高峯集』, 「高峯先生論思錄」 하, 9일.

30) 김경래, 2019, 「울곡 이이의 대신론과 위기의식 -『경연일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8, 35~38쪽.

31) 『宣祖實錄』 권3, 선조 2년 6월 9일(신사) ; 『大東野乘』 「石潭日記」 상, 隆慶三年己巳.

32) 『大東野乘』 「石潭日記」 상, 隆慶三年己巳.

정의 여론이 모두 일치하여 따른 것이고 조광조의 도학을 추모하고 한 시대의 향방을 정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답하여 윤원형 등의 삭훈을 일축했다.³³⁾ 이어는 '대신이 불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다.'며 반발하였으나, 끝내 을사위훈이 모두 삭제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³⁴⁾

1570년에 들어서면서 신원 및 삭탈문제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선조실록』에 기록된 1570년 경연은 8월까지 총 55회였다. 그 가운데 횡수와 무관하게 신원 및 삭탈을 주제로 한 기사는 총 40건이었다. 같은 날에 수차례 요청하기도 하였고, 경연석상이 아니더라도 지방관이 상소를 올리거나 종친들까지 나서서 신원을 요청하는 등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신원 여부를 두고 선조와 신진사류 간의 대립이 심화됐다.³⁵⁾ 兩司를 중심으로 홍문관 등이 합세하여 꾸준히 을사사화의 핵심 주동자인 李芑, 鄭順朋, 林百齡, 鄭彦慤 등의 삭탈을 요청하였고, 대사간 金鸞祥(1507~1570) 등은 삭탈을 달성하기 위해 遞職을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그들의 요구를 개진했다. 특히 三司의 신원 및 삭탈요구는 5월 한 달 동안 16차례에 걸쳐 수용을 요청하였고, 선조는 번번이 거절했다. 선조가 명확히 거부의 의사를 내비친 것은 신원 및 삭탈을 요청한 40건 가운데 15건이었다.

己卯, 乙巳, 丁未士禍에 대한 후속 조치는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자, 확고한 정국 장악을 위해 요구되었다. 의정부 전체가 조강에 입시하여 그 신원과 삭탈을 요청하거나, 兩司가 승啓하고 사직을 담보로 요청하는 등 반복적으로 높은 강도의 압박이 지속됐다. 1570년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는 開城留守, 慶尙監司, 白川郡守 등의 외관들도 해결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당대 사류 전반에 걸쳐서 이 문제의 해결이 요구됐다.³⁶⁾ 선조는 先祖의 遺旨를 바꿀 수 없다는 근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꾸준히 견지했다.³⁷⁾

1570년 8월은 명종이 승하한 1567년으로부터 三年喪을 모두 지내고도 남는 시점이었다. 선조는 승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통성 문제를 보다 강력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선조의 遺旨를 잇는다.'라는 효 사상을 바탕으로 삼았다. 당시 인순왕후는 1569년, 懿聖의 존호로 왕대비가 되어 왕실의 큰 어른으로 살아있던 사실은 선왕의 법도들을 고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또한 위훈 삭제 및 신원 교서의 반포가 시기로는 인순왕후 사후 2년째, 그 방법 또한 인성왕후의 유지를 받드는 형태로 진행됐던 것으로 미루어본다면, 선조는 선왕의 遺旨를 지킨다는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양친에 대한 삼년상을 치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종친들의 삭훈과 신원 요청에 선조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까닭도 宗親들이 과도하게 정사에 관여했다는 것보다 慈殿인 인순왕후에 대해서 무리하게 비판하며 조정 내의 당론을 조장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으로 보면, 이 추측 또한 납득할 만하다.³⁸⁾

그렇다면, 이 시점에 신원과 삭탈을 두고 발생한 선조와 신진사류 간의 갈등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선조가 반대한 까닭은 왕조 정통성을 효 사상이라는 성리학적 가치로써 무장하기 위한 방책이자, 사안 처리 거부를 통한 신진사류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으로 확

33) 『眉巖集』 권6, 「日記」, 戊辰下.

34) 『宣祖實錄』 권3, 선조 2년 9월 25일(을미).

35) 『大東野乘』 「石潭日記」 상, 隆慶四年庚午.

36) 『宣祖實錄』 권4, 선조 3년 8월 8일(계묘).

37) 『宣祖實錄』 권2, 선조 1년 1월 12일(임술).

38) 『宣祖實錄』 권4, 선조 3년 8월 5일(경자).

대 해석할 수 있다. 경연은 성종대 이래로 일종의 정치 합의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자리했다.³⁹⁾ 선조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정통성면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선왕의 뜻을 계승한다.’라는 다분히 성리학적 이념을 근거로 국정을 주도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통해 그 정치투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다.

1570년 8월 이후부터는 위사공신에 대한 삭훈과 피화인들의 신원과 관련된 요청이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선조가 꾸준히 해당 요청들에 대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였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1월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요청을 자체적으로도 금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인 주류를 차지하였고, 신진사류 내에서는 대신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발흥하였다.⁴⁰⁾

이이가 『석담일기』에서 기록한 대로, 11월을 기점으로 삭훈과 신원을 요청하는 상소가 앞선 시기만큼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⁴¹⁾ 대신 경연석상에서 일부 그 내용을 언급하거나 돌려말하고 사회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졌다.⁴²⁾

선조는 삭훈과 신원문제에 꾸준히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사류에게 있어 이 문제는 주요한 사안이었다.⁴³⁾ 李海壽(1536~1599), 鄭琢(1526~1605), 李齊閔(1528~1608), 金誠一(1538~1593) 등이 을사공신의 처벌과 피화인의 신원은 일부 이루어졌으나, 정작 위훈의 삭제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⁴⁴⁾

1571년(선조 4) 경연에서는 1570년 이후로 탄력을 잃은 삭훈 및 신원 요청 설득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사용되었다.⁴⁵⁾ 선조는 ‘孝가 곧 先親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며, 尹和靖이 어머니의 遺旨를 받들어 儒者임에도 불경을 읽었다.’라는 점을 통해 자신 또한 비록 을사위훈을 삭제함이 옳음을 알지만, 선왕이 이미 정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고칠 수 없는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尹根壽(1537~1616)는 ‘잘못된 일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답하였고, 李友直(1529~1590)은 또한, ‘그 행위가 잘못된 일이라면, 오히려 바로잡는 것이 자식 된 사람의 도리이다.’라는 논리로 윤근수의 논지를 보완했다. 선조는 다시, ‘아버이의 명을 따르는 것이 효’라는 의견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곧 효를 실천하는, 성리학 문명의 군주로서 먼저 실천하여 가치를 수호하는 그 정당성을 내세웠지만, 역시 앞과 같이, ‘자식 된 사람으로서 부모가 잘못된 곳으로 간다면, 다시금 인도해야 한다.’는 논리에 맞부딪혔다. 더하여 윤근수는 군주로서의 책무는 앞 시대의 군주들로부터 맡겨진 책무를 이어받아 治亂과 安危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當今の 사회적 분위기가 을사위훈 삭제를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이를 바로잡아 이른바 國是를 바로잡아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본 장에서 살펴본 대로, 을사위훈을 삭제하는 문제는 선조와 신진사류 모두의 입장에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주요한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촉구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조는 꾸준히 을사위훈 삭제와 피화인 신원 문제를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효

39) 남지대, 앞의 논문, 139쪽.

40) 『大東野乘』 「石潭日記」 상, 隆慶四年庚午 ; 『經筵日記』 22책, 辛未十二月初二日.

41) 『大東野乘』 「石潭日記」 상, 隆慶四年庚午.

42) 『經筵日記』 2책, 庚午十一月二十六日.

43) 『經筵日記』 2책, 庚午十一月二十六日.

44) 『經筵日記』 22책, 辛未十二月初二日.

45) 『經筵日記』 22책, 辛未十二月初二日.

사상을 근거로 하였다. 그리고 사화 촉발의 책임을 중종·명종 등 선왕이 아니라 尹元衡, 李芾 등으로 대표되는 척신세력으로 특정지어 삭훈과 신원이 선왕의 뜻을 어기는 불효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 의해 어지럽혀진 선왕의 뜻을 바르게 바꾸는 효성적인 행위임을 설득시켰다. 그러나 선조는 이와 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1577년 인성왕후의 재가를 통해 이를 승인하기 전까지 꾸준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에는 효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조선 전기 군신은 경연에서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삭훈과 신원문제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공방을 지속하였던 것이다.

4. 맺음말

본고는 선조 초기 경연의 추이와 경향을 실록 자료와 경연일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을사공훈 삭제와 기묘·을사년간의 피화인들을 신원하는 문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선조 초기 경연은 세종·성종 연간에 확립된 학술 및 정치적 기능을 갖춘 조선 전기 경연의 종합체적인 특징을 보유한 체로 운영됐다.

경연 제도는 군신간의 유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고려조에 유입되어 조선대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개국 초기의 경연은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했지만 세종대에 접어들면서 그 학문적 기능이 강화됐다. 경연 개최 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집현전이 설치되었고, 경연관은 실직으로서 기능하였다. 성종대 경연은 경연이 정치화되는 시점이었다. 세조대에 정지되었던 경연을 재개한 성종은 유교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경연의 비중을 강화하였고, 혁파된 집현전을 대신하여 홍문관을 설치했다. 또한 국정 현안 문제를 경연석상에서 다루며, 2품 이상의 당상관을 특진관으로서 경연에 참여하게 하여 조강, 주강, 석강 등 정규 진강을 마친 뒤 당대 국정 문제를 경연석상에서 논의했다. 이 시점부터 비로소 경연관들에 의해 경연일기가 작성됐다.

선조 초기 경연은 앞선 시대와 같이 특정 세력이 우세한 형편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군신 사이에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갈등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 경연에서는 기묘사화 및 을사사화로 인해 발생한 피화인을 신원하고 공신을 삭탈하는 주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선조는 ‘선왕의 유업을 잇는다.’ 라는 효 사상적 관점에서 시비판별 문제에 임하여 시비 문제 해결과 경연 운영 전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앞서 성종과 중종이 경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호학 군주를 자처하거나, 사화를 통하여 물리적으로 소거했던 것과 같이 선조 또한 시비판별에서의 결정권으로써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였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선조의 효 사상은 선조 초기 경연에서 활용했던 경서 가운데 『논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선조는 『논어』의 효 사상과 의리론에 입각하여 신원과 삭탈 문제를 기묘사류의 추증 외에는 모두 허락하지 않다가, 인성왕후 사후 2년이 지난 1577년, 인성왕후의 재가를 받는 형식을 통해 신원과 삭탈문제를 종결하여, 경연 운영 면에서의

우위와 부족한 정통성을 확보했다.

이와 같이 선조 초기 경연은 성종대 이래로 본래의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학술적 기능과 현안 정치 문제와 국정 운영 전반을 다루는 정치적 기능이 혼합된 조선 초기 경연을 계승한 형태로 운영됐다. 특히 선조 초기 경연에서는 앞선 명종대 을사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을사위훈을 삭제하고 피화인을 신원하는 문제를 통해 선조는 경연과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자 노력했다. 여기에서 선조는 자신만의 효 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사류와 대립했다. 이렇게 정치투쟁적 성격을 갖추게 된 경연은 성종 이전 여말선초기의 학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여 군주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본래 기능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경연의 이와 같은 일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선조 초기 기록들은 병화로 인하여 사료가 소실되어 구체적인 정상을 실록 자료만을 통해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당대 경연관들의 경연일기를 통해 해당 사실들을 교차하여 검증하여 선조 초기 경연의 강화 추이와 경향을 조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경연 기록물들을 활용하여 선조 초기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經筵日記』 『鶴峯先生文集』 『石潭日記』 『眉巖集』 『高峯集』 『沙溪全書』

2. 논문

구만옥, 2021, 「집현전(集賢殿)의 조직과 운영 체계」, 『인문논총』 78.

권연웅, 1983, 「高麗時代의 經筵」, 『복현사림』 6.

권연웅, 1989, 「조선 영조대의 경연」, 『동아연구』 17.

권연웅, 1998, 「조선전기 경연(經筵)의 위임론」, 『복현사림』 21.

권연웅, 1990, 「조선전기 경연(經筵)의 재이론」, 『역사교육논집』 13.

김경래, 2019, 「栗谷 李珣의 大臣論과 위기의식 -『經筵日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8.

나중현, 2019, 「기대승의 사상사적 위치 -철학적·정치적 입장의 재조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7.

나중현, 2023, 「명종말~선조초 고봉 기대승의 정치활동」, 『한국학논총』 59.

남지대, 1980,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世宗·文宗年間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6.

송용섭, 2013, 「朝鮮 成宗의 右文政治와 그 귀결」, 『규장각』 42.

윤훈표, 2009, 「조선시대 경연 실시의 의미」, 『울곡학연구』 18.

- 윤훈표, 2010, 「승정원일기 경연 기사의 특징」, 『사학연구』 100.
- 윤훈표, 2010, 「조선 정종(定宗) 때의 경연에 대하여」, 『한성사학』 25.
- 윤훈표, 2013, 「15세기 말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 경연의 변모와 그 의미」, 『역사와 실학』 51.
- 이인복, 2021, 「金宇顛의 『經筵講義』의 저술과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99.
- 정재훈, 1999, 『明宗·宣祖년간의 經筵』, 『朝鮮時代史學報』 10.
- 정재훈, 2015, 「선조 초반의 정국과 학문적 대응」, 『한국사상과 문화』 8.
- 지두환, 2009, 「朝鮮時代 經筵官 研究」, 『한국학논총』 31.

권태석, 「선조 초기 경연의 추이와 경향」에 관한 토론문

나종현(서울대)

경연은 동아시아의 유학 전통 속에서 제왕권의 무분별한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인식되었고, 성리학적 정치 이념을 발전시켰던 조선시대에서는 더욱 중시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조선시대 경연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경연 제도의 성립과 추이, 경연에서 사용된 교재에서부터 경연에서의 내용을 기록한 경연일기류의 자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관찬기록과 경연일기류를 고르게 분석 대상으로 삼아, 특히 선조 초반 정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기묘사림의 추증과 위사공신 삭훈 논의를 검토하고 경연에서의 지향을 추출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경연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활용도 또한 넓힌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충분합니다.

선조대는 사람이 정계를 장악하면서 사림정치의 이념을 관철시킴과 동시에, 그 방편을 두고 견해 차이를 빚으며 봉당의 시초를 이루었던 시기로, 조선 중·후기 정치의 전반적인 전개에서 중대한 국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리학적 정치 이념 실현의 주된 수단이었던 경연을 통해 이 시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는 선조대 정국에 대한 이해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경연을 본격적인 연구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기대승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명종말~선조초 정국을 일부 검토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전반적인 구성과 선조대 정국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발표자의 석사학위논문에서 보다 특징적으로 드러났으며, 발표문의 머리말에서도 어느 정도 제시된 것처럼, 이 연구는 관찬사료와 함께 경연일기류를 면밀하게 들여다 보았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론에서의 분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연일기류에 대한 분석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 활용의 폭을 넓히고자 한 연구의 의의를 본론에서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2. II장에서 선조대 경연을 분류하면서, 시비관별적 성격, 정무집행적 경향, 권력추구적 경향, 대립 경향 등으로 나누었는데, 분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에서 계속 이야기된 바와 같이, 사화에 대한 시비 판단은 단순한 시비 판단을 넘어

정치 주체 간의 이념적 대립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김개의 조광조 비판론은 구신과 신진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경연의 경향 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가다듬으면 좋을 듯합니다.

3. 선조 초반 경연의 특징 중 하나로 ‘정치투쟁적 성격’을 보인 것을 지적하고, 성종 이전 여말선초기 군주의 학술적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둔 본래 기능과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경연을 통해 선조와 사림의 이념이 서로 충돌하였던 것은 본문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조 초반의 경연이 ‘정치투쟁적 성격’을 보였다고 해석한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조 초반 경연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지, 특히 여말선초기 경연의 성격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인지 또 별개의 논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도 경연을 통해 조선 전기 위임론을 분석하면서, 왕권의 제약을 위한 신료들의 논리가 경연을 통해 표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권연웅 1998), 이러한 모습은 국왕과 신료의 이념 대립이 표출된 것은 아닐지라도 국왕에게 특정한 정치 사상을 강제하기 위한 정치투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조 초반 경연이 가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종대 경연이 훈척과 사림의 완충 역할을 하였다는 지적(이경동 2020)을 고려하면, 여말선초기 경연의 성격보다 명종대 경연과의 비교가 선조대 경연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에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이 연구에서는 선조 초반 정국의 불씨가 되었던 을사삭훈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는 당시 경연의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조 초반 정국에 관한 서술이 다소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구자 간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선조 초반 정국에 대해서는 구신과 신진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낭천제, 문소전, 을사삭훈 등의 문제를 거치면서 구신과 신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신진관료들 또한 분화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대체로 통설적 이해를 받아들이는 듯하면서도, 구체적인 묘사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III 장에서는 기묘사림 추증 논쟁을 구신과 신진 간의 대립을 위주로, 을사삭훈 문제는 특히 선조와 사림 간의 대립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경연은 아무래도 국왕과 신료 간의 논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경연의 장에서만 살펴보면 대립의 구도가 실제와는 다소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5. 경연을 통해서 이 시기를 살펴보는 작업의 의의를 더욱 명확히 서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조대 사림의 진출과 함께 경연에서 정치이념이 보다 강하게 주창되었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경연에서도 정치투쟁적 성격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연을 통해 이 시기를 살펴보는 방법의 의의를 보다 명확히 제시한다면, 정국의 갈등 구조가 재현되었다는 당시 경연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연구의 의의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세기 후반 노상추의 함경도 진동만호 활동과 지역관방 정비 방안

이강원(고려대)

1. 머리말
2. 18세기 후반 진동보(鎭東堡)의 임무와 진동만호의 역할
3. 행정 업무의 수행과 민정(民政)의 개선
4. 군사 활동의 성과와 영로(嶺路) 중심 관방 개편안의 제시
5. 맺음말

1. 머리말

노상추(1746~1829)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영남 출신 무관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여러 직임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그는 18세가 되던 영조 39년(1763)부터 사망하던 순조 29년(1829)까지 일기를 작성했는데, 그의 일기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중앙과 지방의 무관 제도와 군사 운영에 대해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¹⁾ 따라서 노상추 일기에 기록된 여러 관직 수행 관련 기사를 분석하는 작업은 각 무관 관직과 군사 기구가 실제로 운영되는 실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진동보 및 진동만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노상추는 정조 11년(1787) 6월 22일 진동만호로 임명된 이후 정조 14년(1790) 1월 4일 훈련원 주부로 임명될 때까지 대략 30개월 가량을 함경도 지역 변방 진보인 진동보의 지휘관 직임을 수행하였다. 노상추는 진동만호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그가 수행했던 여러 행정과 군사상의 업무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따라서, 『노상추일기』에 기록된 진동만호의 활동상을 살펴보는 작업 역시 18세기 후반 함경도 남관 지역 일대의 군사 체계와 만호의 구체적인 임무를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함경도 지방의 방어체제와 관련한 연구로는 우선 조선 초기 함경도와 평안도 양계지역의 군사제도와 국방체제 정비 과정을 살펴본 연구가 참고된다.²⁾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 함경도 방어체제의 근간이 자리잡는 과정이 상세히 정리되었다. 이어서, 조선후기 함경도의 지역 발전과 영토의식에 대해 살펴본 연구,³⁾ 함경도 지역의 방어체제를 육진(六鎭)

1) 노상추와 노상추 일기의 개관에 대해서는 문숙자, 2009,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 -무관 노상추의 일기와 조선후기의 삶』, 너머북스 참조.

2) 오종록, 2014,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 국학자료원.

3)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 고승희, 2003,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연구』, 국학자료원.

지역, 내지 지역, 간선 도로망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⁴⁾들을 통해 조선후기 함경도 지역의 발전과 그에 따른 지역 방어체제의 변화상이 비교적 상세하게 해명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함경도 전반 혹은 몇 개의 군현을 아우르는 보다 거시적인 영역에서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진보(鎭堡)와 변장(邊將)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실증과 분석을 하지는 못하였다. 물론 이와 관련해 최근, 『노상추일기』에 기록된 노상추의 북방 관직 활동을 정리한 연구가 제출되기도 했다.⁵⁾ 하지만 그 연구는 주로 노상추의 영남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방점을 두어 북방에 대한 그의 의식을 서술하는데 주목하여 당시 진동보의 조직과 편제 및 실제 진동만호로서 노상추가 수행한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후반 함경도 지역의 개발과 군제변화 속에서 진동보의 위상과 진동만호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 뒤, 『노상추일기』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시 진동만호의 활동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기반 위에서 노상추가 수행한 여러 임무들이 당시 전체 방어체제 개편의 흐름속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18세기 함경도 방어체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3장으로 서술하였다. 1장에서는 18세기 후반 함경도 일대의 정비와 변화속에서 진동보의 임무와 진동만호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노상추가 진동만호로서 수행한 다양한 행정 업무들을 통해 그가 어떻게 진동보 일대의 민정을 개선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변방 진보인 진동보의 지휘관인 진동만호로서 노상추가 수행한 군사활동의 성과와 그가 제시한 방어체제 개편안에 대해 개관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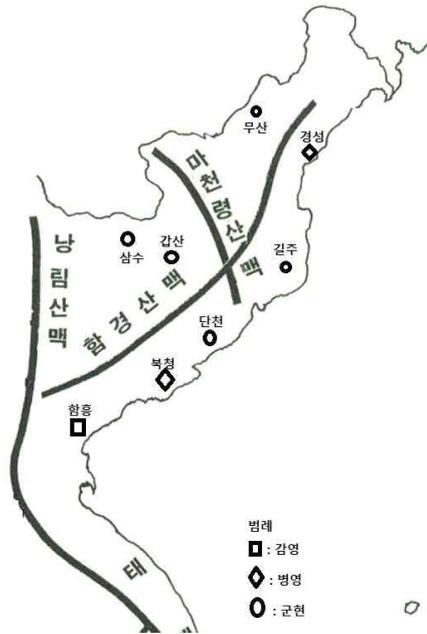
이상의 서술과 관련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노상추일기』를 중심 사료로 사용했다. 이외에 『정조실록』등의 연대기 자료, 『경국대전』, 『대전통편』 등의 법전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진동보 및 진동보가 소속된 갑산부 일대의 개관을 확인하기 위해 『北關志』와 『關北邑誌』 등의 읍지자료도 활용했다.

2. 18세기 후반 진동보(鎭東堡)의 임무와 진동만호의 역할

노상추는 정조 11년(1787) 6월부터 정조 14년(1790) 1월까지 약 30개월간 진동보(鎭東堡)의 지휘관인 만호(萬戶) 직임을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노상추가 진동만호로 재임했던 18세기 후반 당시 진동보의 임무는 어떠한 것이었으며 진동만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을까?

4) 강석화, 2005, 「조선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제」, 『한국문화』 36 ; 고승희, 2005, 「함경도 내지 진보의 변화」, 『한국문화』 36 ; 노영구, 2005, 「조선후기 함경남도 간선 방어체제」, 『한국문화』 36.

5) 하명준, 2018, 「정조대 영남 무관 노상추의 지역 정체성과 북방 관직활동」, 『嶺南學』 66.



<그림 1> 함경도 지역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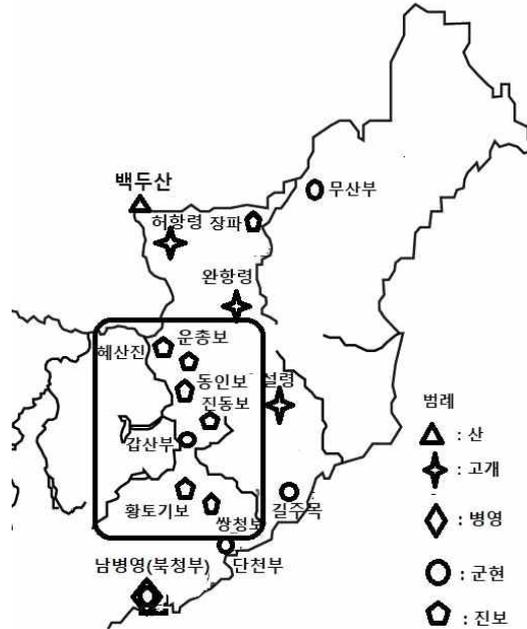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동보가 위치한 함경도 갑산부의 지역적 개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함경도는 서쪽으로는 낭림산맥을 경계로 평안도와 맞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철령(鐵嶺)을 경계로 강원도와 갈라지며, 북쪽으로는 두만강과 백두산을 경계로 만주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 동북단 지역이다.

함경도는 마천령산맥을 기준으로 크게 남관(南關)과 북관(北關)으로 구분되는데, 조선시대 남관과 북관은 별도의 군사 단위로 편제되었다. 세조 13년(1467)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이후 기존에 북관 지역인 경성(鏡城)에 위치해 있던 함경병영 이외에 남관에 위치한 북청(北靑)에 별도로 남병영을 두고 기존의 함경병영은 북병영으로 이름을 고침에 따라, 남관은 남병영, 북관은 북병영이 관할하는 체제가 정립되었기 때문이다.⁶⁾

남관은 또다시 함경산맥을 기준으로 단천, 북청 등 남쪽의 연해지역과 두만강 인근의 내지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내지 지역은 비교적 넓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함경도 남병영 소속의 좌영과 우영인 삼수와 갑산 두 곳의 군현만이 설치되어 있었다. 대신 두 군현에는 각기 여러 진보들이 소속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⁷⁾

6) 『세조실록』 권44, 세조 13년 11월 1일 계해.

7) 오종록, 2014,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 국학자료원, 302~305쪽. 진보는 구자(口子) 혹은 보(堡)라고 하는 관방시설을 거점으로 삼아 변방지역의 방어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중앙에서 무관(武官)이 파견되는 군사기관 중 최전선의 군사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그림 2> 갑산부의 개관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8세기 후반 갑산부에는 진동보를 포함해 혜산진(중 3품 병마첨절제사진), 운충보(중4품 병마만호진), 동인보(중9품 권관진), 쌍청보(중9품 권관진), 황토기보(중9품 권관진) 등 총 6개의 진보가 소속되어 있었다.⁸⁾

진동보는 중4품 만호진으로서 중3품 병마첨절제사가 파견되는 혜산진에 비해 지위가 낮았지만 갑산부 소속 진보중 갑산부 읍치에 가장 인접한 진보로서 그 위상이 높았다. 17~18세기 백두산 일대에서 갑산을 연결하는 허항령로와 무산과 갑산을 잇는 완항령로가 정비되었다. 남관의 내지와 연해의 길주·단천 등을 연결하는 설령로와 갑산과 북청을 연결하는 황토령로도 활발히 이용되었다.⁹⁾ 진동보는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영로(嶺路)에 인접한 교통거점으로서 그 군사적 중요성이 점차 제고되었다.¹⁰⁾

영로의 활용에 힘입어 1780년대 초 무산과 갑산 사이에 위치한 장파(長波)에 진보가 설치되고 일련의 정비가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진동보는 무산-장파-갑산을 잇는 교통 거점으로서의 위상도 지니게 되었다.¹¹⁾ 이를테면 노상추가 진동만호를 역임하는 시기에 이르러 진동보 일대는 길주, 북청 등 남관과 북관의 연해 지역과 내지 그리고 강변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갑산의 주요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것이다.¹²⁾

8) 『대전통편』 병진 외관직.

9) 고승희, 2003,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연구』, 국학자료원, 58~62쪽 ; 고승희, 2005, 「함경도 내지 진보의 변화」, 『한국문화』 36, 354~360쪽 ;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7월 14일·15일·16일. 실제로 노상추는 진동만호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북청에서 황토령로를 사용했다.

10)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12월 30일 을축 ;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10월 8일 무술.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종대 후반에서 숙종대에 이르기까지 진동보를 개편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결과적으로 진동보를 중9품 권관진에서 중4품의 만호진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11) 고승희, 2005, 위의 논문, 358~361쪽.

12)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8월 6일 ;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6월 26일 ;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물론, 18세기 이후 청나라의 대륙지배가 안정화됨에 따라 18세기 후반 진동보를 비롯한 함경도 남관의 내지 지역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제거된 상태였다. 더욱이 17세기 전반 누르하치가 만주의 여러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우디케, 백산부락과 번호(藩胡)를 비롯한 일대의 부족들을 이끌고 요동 지역으로 이동한 뒤 만주 일대를 봉금지대로 설정했기에 진동보 일대의 군사적 위협은 크게 줄어들었다.¹³⁾ 실제로 두 차례의 호란을 거치는 과정에도 후금(後金)과 청(淸)의 주된 침입로가 양서(兩西) 지역에서 도성 방면으로 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함경도 전역은 군사적으로 크게 활용되지 못했다.¹⁴⁾

그럼에도 18세기 후반 진동보의 군사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했다. 먼저 18세기 후반 정조대까지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진동보를 포함한 변경 지역의 군사적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존했다. 실제로, 18세기 후반 활동한 무인 송규빈은 정조 2년(1778) 간행한 『풍천유향』에서 청나라의 정승 부항(溥恒)이 자결한 사건을 대하면서 유사시 청나라의 정세가 위협해질 경우 평안도와 함경도 등 변경지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¹⁵⁾

진동보의 치안 기능에 대한 필요성은 오히려 증대되었다. 교통의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먼저 백두산과 압록강과 두만강 등 강변 일대가 봉금지(封禁地)라는 점을 노리고 몰래 국경을 넘어 인삼이나 담비 등을 사냥하는 월경(越境)의 문제가 심화되었다. 또한 인구 증가와 교통 발전으로 명화적과 강도가 성행함에 따라 이들을 검속하고 체포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¹⁶⁾

이처럼 18세기 후반 진동보는 치안의 거점이자 유사시 침입을 대비하는 변방 진보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동시기 진동보의 수장인 진동 만호의 역할도 중요했다. 변방 험지의 관직으로 기피되기도 했으나,¹⁷⁾ 진동만호는 무관 중 우수인원인 선천(宣薦) 출신 중에서 채수되었으며,¹⁸⁾ 기본적으로 900일의 근무 기한을 채우면 다시 경직(京職)으로 옮겨갈 것이 규정되어 있었다.¹⁹⁾

진동만호는 변방 진보의 지휘관이었기에 소속 군병과 관방시설 및 무기를 관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의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진동만호의 중요한 과업이었다. 하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진동만호는 예하 병력인 토졸(土卒)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재

4월 19일. 실제로 갑산부는 동전 유통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미곡과 소금의 등에 있어서 남관 연해지역인 북청군의 상인을 통해 상품 유통이 활발히 이뤄지는 양상이 확인된다.

13) 노영구, 2005, 「조선후기 함경남도 간선 방어체계」, 『한국문화』 36, 378~379쪽 ; 고승희, 2005, 위의 논문, 345~347쪽.

14) 노영구, 2005, 「조선후기 함경남도 간선 방어체계」, 『한국문화』 36, 378~379쪽 ; 고승희, 2005, 위의 논문, 345~347쪽 ; 장정수, 2016, 「병자호란시 조선 勤王軍의 남한산성 집결 시도와 활동」, 『韓國史研究』 173, 165~175쪽.

15) 『풍천유향』 「서문」.

16) 강석화, 2000, 위의 책, 41~47쪽. 이에 숙종대에는 백두산 정계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17)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6월 22일. 실제로 노상추는 진동만호에 임명된 이후 자신이 세력이 없어 쫓겨난 것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18) 宣薦에 대해서는 정해은, 2001, 「조선후기 宣薦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현실』 39가 참조된다.

19) 『大典通編』 兵典 外官職 江界三水甲山邊將. “江界·三水·甲山邊將, 以宣薦人差除, 待準朔, 陞遷京職”; 『經國大典』 兵典 外官職 節度使虞候評事. “未挈家僉節制使·萬戶, 則九百乃遞”; 『노상추일기』 정조 14년 1월 4일. 노상추도 근무기한을 채운 후 경직(京職)인 훈련원 주부로 내천(內遷)되었다.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 업무들도 책임져야 했다.

토졸(土卒)들은 토호(土戶)라고 하는 진동보의 거주민 중에서 차출되었는데 이들은 일반 군현의 백성들에 비해 신역(身役)이 고되고 신분이 천하게 인식되었다. 이에 관(官)에서는 내시노비들 중 일부에게 역을 면해주는 대신 토졸(土卒)로 삼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들에게 중군(中軍), 천총(千摠) 등의 고위 장교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²⁰⁾

또한, 토졸들은 진동만호를 도와 함경감영과 남병영에서 부과한 여러 공납 임무도 수행해야 했다. 신삼(信蔘)을 비롯해 토저피(土猪皮)와 산양피(山羊皮) 등의 진상품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²¹⁾ 이처럼 진동 만호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기에 필요에 따라 토졸들에게 감관(監官), 색리(色吏) 등 원역 직임을 부여하기도 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토졸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으며 여러 가지 혜택 및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만큼 고된 역이었다. 또한 함경도 내지 지역은 농사가 힘든 척박한 곳이었다. 따라서, 토졸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병력의 확보를 위해서 진동만호는 환곡 운영과 둔전 경영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했다.

이상의 행정 업무 수행에 바탕하여 진동만호는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군사 실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했다. 함경남병사 및 함경 남병영 소속 좌영장이자 토포사를 겸하는 갑산부사의 지시에 따라 파수처의 적간과 군사 훈련 등 여러 군사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진동보의 경우 갑산부 소속 진보중 갑산부 읍치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진보였기에 유사시 갑산 일대 최종 방어처로서의 위상을 지녔다. 실제로, 진동보는 주위에 둘레 1,326척과 3개의 문루를 갖춘 둘레 1,326척의 성곽을 갖추고 있었다.²²⁾ 따라서 진동만호는 이러한 관방 시설과 무기 및 군사 장비를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했다.

이처럼 18세기 후반 진동만호는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노상추는 정조 11년(1787) 7월 17일 진동만호로 부임한 이래, 정조 14년(1790) 1월 4일 훈련원 주부로 임명되고 2월 4일 후임만호인 이연일(李彦一)에 인수인계를 마칠 때까지 대략 30개월간 진동만호의 직임을 맡았다.²³⁾ 그는 나름의 방식대로 행정 업무와 군사실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해 2장과 3장에서는 각기 노상추의 진동만호 활동을 행정 업무와 군사 실무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분석해보고자 한다.

3. 행정 업무의 수행과 민정(民政)의 개선

노상추는 진동만호로 재임하는 동안 군사 및 치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이외에도

20) 『비변사등록』 정조 11년 7월 14일 ;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5월 13일. 노상추는 갑산규례에 따르면 내수사의 노(奴)로서 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중군과 천총등의 고위장교로 이를 수 있었고 기록하고 있다. ;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6월 28일, 또한 노상추는 내노비 출신인 박성필이라는 자는 그 아들이 장교에 올랐으며 손자는 향교의 유생에까지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21) 조선후기 인삼 공납제의 운영상에 관해서는 문광균, 2011, 「18세기 江界지역 貢蔘制의 운영과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57 참조.

22) 『關北誌』(국립중앙도서관, 古 2790-7) ;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5월 13일.

23)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6월 22일, 정조 14년 1월 4일, 2월 4일.

농사와 진휼 등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을 수행하였다. 해당 업무들은 진동만호의 수하인 토졸과 주민인 토호의 재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진동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었다.²⁴⁾

노상추가 진동만호로써 수행한 행정 업무는 크게 인사 업무, 권농(勸農) 업무, 환곡 운영, 신삼(信蔘) 및 각종 진상 상납 등의 네 가지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인사업무는 노상추가 진동만호로서 여러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를 담당할 인원들을 파악하고 임명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시기 직임	정조 11년(1787) 11월 14일	정조 12년(1788) 6월 24일	정조 12년(1788) 11월 24일	정조 13년(1789) 11월 28일
병방(兵房)	김경삼	박덕지		박옥춘
병교(兵校)			김찬룡	
문서색(文書色)	김찬룡		김덕신	
군향감관 (軍餉監官)	김성삼	김경삼		
군향겸군기감관 (軍餉兼軍器監官)				김덕신
예방				김봉덕
예방감관 (禮房監官)				김명팔
수토병 (首土兵)	이복삼	이복삼	김홍담	
금단감관 (禁斷監官)	박덕지	강명팔	전정사	
수토병겸금단감관 (首土兵兼禁斷監官)				김고음산
호방색리 (戶房色吏)	박금대	박금대	김운극	고사리동
금단색리 (禁斷色吏)	박원대	박원대	未詳(해독불가)	김대용
공방색리 (工房色吏)	윤일암	윤일암	김정화	송용대
회고직 (回庫直)	김용삼	김용삼		
고직 (庫直)				김선극

<표 1> 진동보 실무자 임명 관련

※ 전거 : 『노상추일기』

이와 관련해 노상추는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매년 11월에 다음 년도 실무자를 각 보직에 임명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개별 직임의 명칭과 위계는 명확하지 않고

24)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 7월 14일(신유), 물론, 만호의 여러 임무에서 행정과 군사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당시 조정에서도 영종진 등 일부 진보의 경우에는 호구, 환곡, 전정 등의 업무를 군읍(郡邑)의 경우처럼 수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만큼 호구(戶口), 환곡(還穀), 전정(田政) 등에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의 측면으로 구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매년 직임의 구성이 조금씩 변화했다. 기본적으로 진동보가 군사기구였던 만큼 병방·병교·병교·병방군관이나 군향감관등 군사관련 직임이 다른 직임에 비해 위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직임들은 각기 주어진 이름과 같이 군병, 문서, 군향(軍餉), 군기(軍器), 창고(倉庫) 등의 관리를 수행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보직 임명을 새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정조 12년(1788) 6월 24일의 경우 군향감관(軍餉監觀) 김성삼이 동헌의 보수 공사과정에서 일처리를 잘 못하여 경질되는 반면, 금단감관 박덕지는 성실히 참여하여 병방(兵房)으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된다.²⁵⁾

아래의 표에 제시된 직임들 이외에도 『노상추일기』의 내용 중에는 청수(廳首), 사령(使令), 하진무(下鎭撫), 통인(通引) 등의 직임도 있었다.²⁶⁾ 표에 제시된 직임들과 기타 여러 직임들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임무 수행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받았는지는 명확히 서술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정조 13년(1789) 11월 28일, 토졸(士卒) 김정삼이 청수(廳首)의 직임에서 면직당한 것에 양심을 풀고 소지(所志)를 제출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특정 직임을 수행하는 유·무형의 반대급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권농(勸農) 업무는 진동보의 운영 재원 및 토졸 및 토호들의 생계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업무였다. 아울러 권농(勸農)은 진동만호에 대한 함경 남병영의 포폄에 있어서도 주된 평가 요소 중 하나였으므로 진동만호의 역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⁷⁾ 이와 관련해 노상추는 먼저 부임한 초기인 정조 11년(1787) 7~8월에 이르기까지 삼수와 갑산 일대의 농업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함경도 지역의 경우 삼남과 달리 벼 농사가 되지 않고 곡물 농사의 경우 봄보리와 귀리가 주종이었다.²⁸⁾ 봄보리와 귀리의 경우에는 보통 초봄에 파종하여 초여름에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를테면 정조 12년(1788)의 경우 봄보리는 7월초에 타작이 마무리되었으며 걸귀리(耳牟)와 쌀귀리(耳麥)는 7월 말, 조(粟)와 메밀(木麥)의 경우에는 그보다도 수확이 늦었다.²⁹⁾

노상추는 부임 이듬해인 정조 12년(1788)과 다음해 정조 13년(1789) 두 해에 걸쳐 파종과 경작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전 과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우선, 정조 12년(1788)의 경우 노상추는 2월 11일에 봄보리와 귀리 1천석 종자를 분급했는데 그해 봄 농사의 수확은 6월 10일에 완료되었다.³⁰⁾

아쉽게도 정조 12년(1788)의 경우 6월까지 여름추위가 이어지는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수확은 흉년에 그쳤다.³¹⁾ 실제로, 노상추는 수확 당시 뿐 아니라 연말 환곡을 분급할 때 모든 백성들이 환곡을 분급받으러 온 것을 통해 이 해 농사가 흉년이었음을 알겠다라고 기록

25)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6월 24일, “聲三卽半年成造, 謀避頗多, 官事有曠以改差. 慶三則半年勤勞, 悉心無懈, 故差任軍餉. 朴德則半年成造, 克勤奉公, 故陞差”.

26)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11월 14일, 정조 13년 11월 28일.

27)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6월 20일, 변장(邊將)에 대한 포폄은 함흥감사가 아닌 함경 남병사가 시행했으나 그 포폄 내용중에도 권농의 실시 여부가 들어 있음이 확인된다.

28)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8월 7일.

29)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7월 26일.

30)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2월 11일, 6월 10일.

31)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6월 10일 ;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11월 16일. 실제로 이 해 진동보가 속한 갑산부는 재실분등에서 지차의 등급을 받기도 했다.

하고 있다.³²⁾

정조 13년(1789)의 경우에는 종자 분급 시기가 정조 12년(1788)에 비해 한달 가까이 지체되었는데, 이는 작년보다 봄 추위가 심했기 때문이었다.³³⁾ 노상추는 이와 관련해 봄 추위로 인해 예년보다 밭갈이가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³⁴⁾ 계속된 봄추위로 인해 5월 8일에는 파종이 마무리되었고, 파종이 끝나고 난 뒤에도 한재(旱災)가 발생하는 등 여러 위기가 이어졌다.³⁵⁾

하지만 5월 23일 다행히 비가 내림에 따라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³⁶⁾ 5월 말 내리기 시작한 비가 6월까지 이어지며 다소간의 흉수가 발생하기도 했다.³⁷⁾ 하지만 끝내는 7월 10일 수확 시 흉년을 면한 것이 확인되었다.³⁸⁾

이러한 결과는 일정 부분 노상추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³⁹⁾ 인접한 운총보 일대와 삼수 지역의 경우 가뭄으로 보리농사가 흉작이었으며, 갑산부도 정조 13년(1789) 겨울 분급했던 환곡 중 절반에 가까운 액수를 수납하지 못한데 반해 진동보만이 환곡을 거의 완납받은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⁴⁰⁾

농사의 감독과 관리 뿐 아니라 노상추는 둔전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⁴¹⁾ 조선 후기 변방의 진보들은 자체적으로 일정한 둔전을 운영하여 재원을 마련했다.⁴²⁾ 이는 진동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노상추가 부임했을 당시 진동보는 본래 규정보다 적은 규모의 둔전을 확보하고 있었다.

본래 법전 규정에 따르면 도호부 소속 각 진보(鎭堡)의 둔전은 5결이어야 했다. 하지만, 노상추 부임 당시 각 진의 둔전은 3결뿐이었다. 이에 노상추는 직접 일대를 순찰하여 누락된 전결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측량작업까지 시행했던 것이다.⁴³⁾

이어서 노상추가 진동만호로써 수행한 행정 업무 중 또 하나의 대표적인 업무는 환곡 관련 업무였다. 노상추 본인이 부임 초기 2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해 ‘다른 공무는 없고 환정(還政)만 있을 뿐이다.’라고 일기에 서술한 것⁴⁴⁾은 물론이고 노상추를 비롯한 여러 진보 변장(邊將)과 인근 지역 수령의 포폄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이 환곡 업무를 잘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라는 점에서 환곡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⁴⁵⁾

32)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6월 22일·12월 24일 ; 『비변사등록』 173책, 정조 12년 12월 10일. 이 당시 갑산과 진동보 뿐 아니라 함경도 전반적으로 흉년이 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경상도의 포항창으로부터 각종 곡식 2만 5천석을 함경도로 이전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33)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3월 1일.

34)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3월 10일.

35)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5월 8일·17일.

36)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5월 23일.

37)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6월 10일·15일·19일.

38)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7월 10일.

39)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14일. 정조 13년(1789) 진동보를 제외한 함경도 남관 지역에 흉년이 발생해서 진휼을 받은 기민의 연인원이 29만 6508명이었으며 진휼곡의 규모는 29,985석이었다.

40)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10월 24일·12월 25일.

41) 조선후기 둔전 경영의 실태에 대해서는 宋亮燮, 2006, 『朝鮮後期屯田研究』, 경인문화사가 참조된다.

42) 『대전통편』 권2, 호전 관둔전.

43)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10월 9일·10월 12일.

44) 각주 3번 참조.

또한 진동보는 변방지역이었기에 환곡 운영은 모민(募民)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진보에 소속된 토졸들은 신역(身役)이 과중하여 달아나는 경우가 많았다. 조정에서는 진보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부역을 줄여주거나 내시노비 중 일부의 역을 면해주고 토졸로 획급해주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확보된 민호(民戶)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곡의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중요한 것이었다.⁴⁶⁾

노상추가 진동만호로서 환곡과 관련하여 수행한 작업은 크게 분급, 환납, 창고 점검 및 마감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의 작업들은 농경의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1년의 주기로 반복되며 진행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진동보 일대의 경우 삼남지역과 달리 봄보리와 귀리가 주된 곡종이었기 때문에 환곡의 분급 시기와 수납 시기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진동보의 환곡 총액은 절미(折米) 기준 1,500석이었다.⁴⁷⁾ 환곡의 분급과 관련해서 진동보 주로 연말연시에 세반(歲飯) 명목으로 환곡을 분급했다.⁴⁸⁾ 분급된 환곡은 크게 두 차례로 나누어 환납되었다. 주된 곡물인 봄보리와 귀리가 수확되는 8월까지 1차로 수납한 후, 조(粟)와 메밀(木麥) 등이 수확된 이후 연말까지 최종적인 환납이 이뤄진 것이다.⁴⁹⁾

분급했던 환곡의 환납이 이뤄진 뒤에는 창고 점검과 마감 작업이 이뤄졌다. 환곡의 환납이 2차례 이뤄졌기 때문에 창고 점검 및 마감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1차 환납이 마무리된 이후인 8~9월에 진동부사와 행영비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창고 점검이 이뤄졌다.⁵⁰⁾ 이후 연말까지 환납을 마친 이후에는 군향색리 등을 병영 등지로 보내 문서를 마감하는 조치를 끝으로 1년 동안의 환곡 업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⁵¹⁾

이러한 일련의 작업 과정은 포폄에서 주된 평가요소가 되는 만큼 주요한 업무였으나 주민들의 생활과 민감하게 연관된 만큼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정조 12년(1788)의 경우 노상추는 환곡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백성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당시, 갑산부는 지차읍으로 지정⁵²⁾되었으나 가을에 수확이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주로 여름에 추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납부기간에 있어서 연기가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오해한 진동보 민인(民人)들이 노상추가 조정의 명령을 어기고 환곡 납부 기한을 늘려주지 않는다고 함경감영과 남병영에 소장(疏狀)을 제출했던 것이다.⁵³⁾

이처럼 환곡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노상추는 이듬해인 정조 13년(1789)의 경우 비교적 우수하게 환곡을 운영하였다. 갑산부의 경우 전체 15,000석의 환곡 중 1/3이 넘는 5,000석 이상을 수납하지 못한 반면, 진동보는 받아야 하는 환곡 총액 1,500석 중 50여석을 제외하곤 완납했기 때문이다.⁵⁴⁾

45)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6월 21일·12월 18일, 정조 13년 6월 20일·12월 19일.

46) 『비변사등록』 영조 38년 3월 17일 ; 『비변사등록』 정조 11년 7월 4일.

47)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10월 24일.

48)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12월 21일, 정조 12년 12월 24일, 정조 13년 12월 27일.

49)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11월 16일

50)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9월 8일, 정조 12년 8월 20일.

51)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12월 16일, 정조 13년 12월 25일.

52)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11월 16일.

53)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12월 16일.

54)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10월 24일·12월 25일. 받지 못한 50석은 갑산부에서 진동보에서 200석

이는 기본적으로 그 해 진동보 지역의 농사가 풍년을 거둔 탓이기도 했으나, 노상추가 실제 관련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함흥감영에서는 환곡의 수납과 관련한 서목에서 노상추가 상세히 작업을 수행하고 보고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그를 눈상해야 한다고 기록하기도 했다.⁵⁵⁾

끝으로 노상추는 신삼(信蔘) 및 각종 진상의 상납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먼저 신삼(信蔘)은 통신사가 일본으로 파견될 때 에도막부의 쇼군이나 대마도주 등 일본 주요인사에게 전달하는 예물로써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등에 부과되었다.⁵⁶⁾ 정조 11년(1787) 조정에서는 통신사를 파견할 것을 계획하며 신삼 240근을 마련하되 함경도에 50근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⁵⁷⁾

함경도의 경우 감영이 남병영과 북병영을 통해 각 군현에 일정량의 인삼 상납액을 지정하면 각 군현에서 소속 진보와 함께 현물의 인삼을 마련해 상납해야 했다.⁵⁸⁾ 하지만 실제로는 각 진보와 군현이 해당 액수의 동전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삼의 상납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진동보의 경우 정조 11년(1787)에는 9전(錢), 정조 12년(1788)에는 8전 5푼을 부담했다.⁵⁹⁾

한편 노상추는 진상 마련에 있어서 일정한 개선을 이뤄냈다. 진상의 부담을 크게 견감시킨 것이다. 원칙적으로 진동보는 남병영에 매년 산양피(山羊皮) 1령(令)과 토저피(土猪皮) 3령을 현물로 마련한 뒤 이를 과발로 상납해야 했다.⁶⁰⁾

하지만 갑산 지역의 경우 여러 동물 가죽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 이를 동전으로 구매해야 했는데, 그 비용부담이 적지 않았다.⁶¹⁾ 이에, 노상추는 정조 12년(1788) 9월 정부에 해당 진상품 명목을 없애달라고 요청하였다.⁶²⁾ 결국 일련의 논의 끝에, 산양피와 토저피의 진상은 혁파될 수 있었다.⁶³⁾

앞서 살펴봤듯이 노상추는 진동보의 관리자인 만호로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행정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백성들과의 갈등 및 소요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상추는 환곡과 진상 운영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민정(民政)의 개선을 이루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진동보의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군사조직으로서의 진동보의 기능을 온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 환곡을 빌려간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이었다.

55)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10월 11일

56) 문광균, 2011, 「18세기 江界지역 貢蔘制의 운영과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57, 174쪽.

57) 『일성록』, 정조 11년 8월 29일. 한편 평안도 강계부에 부과된 인삼은 170근으로 가장 많은 액수였다.

58)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11월 10일·21일,

59)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9월 30일, 정조 12년 5월 9일.

60)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10월 28일·11월 29일.

61)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8월 6일. 당시 삼수·갑산 지역의 경우 동전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위에서 봤듯이 실제로는 진동보를 포함한 삼수·갑산 지역에서 각종 진상 등을 위해 동전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2)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9월 18일.

63)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10월 4일.

4. 군사 활동의 성과와 영로(嶺路) 중심 관방 개편안의 제시

진동만호는 여러 행정 업무를 수행했지만 기본적으로 함경도 남병영 소속의 변장(邊將)이었다. 따라서 노상추는 진동만호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군사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노상추는 진동보를 포함한 남관 일대의 관방 정비에 대한 나름의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절에서는 먼저 진동만호 노상추의 군사활동에 대해 크게 군병 및 무기 관리, 치안 임무, 시취(試取) 및 군사의례 참관, 관방시설 정비의 네 가지로 나누어 그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노상추가 진동보를 비롯한 남관 내지 지역 일대의 관방에 대해 제시한 개편안과 그 의의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군병 관리와 관련해 진동보의 군병은 기본적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토호(土戶) 중에서 충정되는 토졸(土卒)로 구성되었다. 노상추가 부임할 당시 진동보 소속 토졸(土卒)의 정확한 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노상추 부임 당시 토호(土戶)의 숫자가 39호였으며,⁶⁴⁾ 19세기 중반에 작성된 『北關邑志』와 『關北誌』에 기록된 진동보 소속 토졸의 숫자가 각기 47명과 36명으로 기록된 바로 미루어 볼 때 노상추 재임 당시 진동보 소속 토졸의 숫자도 40여명 안팎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⁶⁵⁾

노상추는 진동만호로서 점고와 인사 운영을 통해 소속 토졸을 관리했다. 우선 파수처에 입방하는 토졸(土卒)에 대해서는 매월 5차례 점고하는 방식으로 근무실태와 탈영 여부를 점검하였다.⁶⁶⁾ 병방과 수토병의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업무수행의 성과에 바탕해서 승진 혹은 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해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노상추는 연말에 떡과 술을 먹이는 등의 방식으로 소속 토졸들을 위무하기도 했다.⁶⁷⁾

토졸들에 대한 군사 훈련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 당시 함경도 일대에서 연달아 흉년이 발생함에 따라 함경도 일대 군병들에 대한 습조, 영장순점, 관문취점 등의 공식적인 군사훈련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기인한 것이었다.⁶⁸⁾ 비록, 공식적인 군사훈련은 중지되었으나 노상추는 갑산부사의 지휘하에 갑산부 소속 각 사(社)의 무과출신 혹은 한량 무사 50여인과 활쏘기를 하는 것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군사 훈련에 참여했다.⁶⁹⁾

한편 무기 관리와 관련해 노상추는 기본적으로 휘하에 군기감관(軍器監官)을 별도로 두어 그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⁷⁰⁾ 또한 그는 스스로도 진동보 자체의 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관리 실태를 조사했으며,⁷¹⁾ 파수처에 대한 순찰과 적간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64)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7월 17일.

65) 關北誌(국립중앙도서관, 古 2790-7) ; 『北關邑志』(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奎 12170) ;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3월 7일. 다만 관아 공사와 관련해 입방한 이들을 제외한 토졸들을 노소에 관련없이 9인씩 9패로 작폐하여 부여하게 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당시 어리거나 늙어서 토졸 직역을 수행하지 않는 이들을 포함해 진동보 소속의 현역 토졸과 예비병력은 최대한 100여 명에 가까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66)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8월 28일.

67)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12월 30일.

68) 『비변사등록』 정조 11년 7월 10일 ;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1월 7일·9월·7월 14일·9월 8일 ; 김우철, 2001,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13~222쪽. 실제로 정조대에 이르러 지방군에 대한 훈련이 점차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69)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6월 13일·14일.

70) 표 1 참조.

파수처의 무기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다.⁷²⁾



<그림 3> 진동보와 고진동

※ 전거 : 『대동여지도』

노상추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치안 관리의 외침의 위협이 사실상 사라진 18세기 후반 당시, 변장(邊將)이 수행하는 군사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⁷³⁾ 특히, 진동보의 경우 국경에서 다소 떨어져 있으나 교통로의 거점에 위치하여 치안 임무의 비중이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치안과 관련한 진동만호의 기본적인 임무는 소속 파수처에 대한 파수와 순찰이었다. 진동보의 파수처는 고진동(古鎮東) 지역 한 곳이었다.⁷⁴⁾ 고진동은 과거 숙종 즉위년(1674)까지 진동보가 위치해 있던 지역으로 위의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노상추 당시의 진동보보다 서남쪽으로 20여리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⁷⁵⁾

그런데 고진동 지역은 황토기보, 쌍정보 등을 지나 단천(端川)으로 향하는 이른바 황토령로에 인접하였다.⁷⁶⁾ 이에 18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고진동 지역에는 삼림이 우거지고 거주인구가 희소했으나 노상추가 부임했을 당시에는 인구가 늘어나 농경과 벌목 등으로 민둥산이 되어 있었다.⁷⁷⁾ 고진동 일대에 대한 파수와 치안관리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상추는 진동만호로서 기본적으로는 4월부터 9월까지 토졸들을 파수처에 입방(入防)시켜 채삼과 채벌 등을 위해 불법으로 월경(犯越)하는 이들과 같은 수상한 자들을 적간하게 하였다. 그는 또한 토졸들로 하여금 채삼하러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를 성책(成冊)

71)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7월 20일·10월 26일.

72)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8월 20일.

73)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3월 6일. 다만 이 시기에도 종성 등 강변지역의 경우 소수의 청나라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와 군항을 탈취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74) 關北誌(국립중앙도서관, 古 2790-7).

75)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8월 13일. 진동보는 본래 고진동 위치에 있다가 현종 15년(1674) 남구만의 건의에 의해 두만강에 가까운 감평(甘坪) 일대로 옮겨졌다가 오래지 않아 숙종 4년(1678)에 노상추 당시 진동보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76)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8월 13일.

77)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8월 21일.

하여 보고하게 했다.⁷⁸⁾ 뿐만 아니라 노상추는 정조 11년(1787) 8월 13일과 정조 12년(1788) 8월 20일 두 차례 고진동 지역 파수처를 직접 적간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⁷⁹⁾

노상추는 진동보 인근 행인에 대한 기찰도 실시하였다. 함경감영과 남병영으로부터 과방(罷榜)한 이후에도 의심스러운 이들이나 호패 없이 진동보 일대를 돌아다니는 이들을 검속하라는 명령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⁸⁰⁾ 타지역 인물들의 진동보 일대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으로 내부의 인물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도 했다. 이를테면 정조 13년 방비(防婢) 소애(小愛)가 길주 사람 최득관(崔得寬)과 함께 도주하자 수토병(首土兵) 김돌이를 보내 소애(小愛)를 추포한 것이다.⁸¹⁾

한편, 노상추는 함경 남병영 소속의 변장(邊將)으로서 군사 의례에 참여하는가 하면 각종 시취(試取)에도 관여했다. 먼저 군사 의례와 관련해 노상추는 정조 11년 (1787) 9월 이후 총세 차례 혜산진 독제에 헌관(獻官)으로 참여했으며,⁸²⁾ 정조 13년(1789) 1월에는 백두산 맹삭제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동료 변장(邊將)과 함께 주변의 형세와 지리를 답사하기도 했다.⁸³⁾

노상추는 무과 초시(初試)와 친기위(親騎衛) 도시(都試)등의 시관(試官)으로 참여하기도 했다.⁸⁴⁾ 우선, 그는 정조 12년 8월 22일 이성(利城)에서 치뤄지는 무과 초시의 시관(試官) 예차(預差)로 임명된 이후 그해 9월 5일까지 이성(利城)에서 시험 진행에 참여했다.⁸⁵⁾ 정조 13년(1789) 습조와 관문취점 등이 취소된 상황 속에서 친기위와 마병 도시는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⁸⁶⁾ 에 따라 노상추는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북청 남병영에서 친기위 도시에 참여해 유엽전/편전 등의 시험을 감독하였다.⁸⁷⁾

끝으로 노상추가 진동만호로 재임하는 과정 중 가장 중점을 두었으며 큰 성과를 거둔 군사 활동은 바로 관방시설 정비라고 할 수 있다. 노상추는 재임 기간동안 함경 남병영으로부터 받은 다섯 차례의 포폄중에서 네 차례의 포폄에서 관사와 관청을 잘 수리했다는 점을 들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⁸⁸⁾ 한 차례의 포폄이 관방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받은 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진동만호로 재임하는 동안 노상추가 거둔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바로 관방시설의 정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진동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보로써 동헌, 객사, 창고 등의 관아 건물(官舍)과 성곽을 비롯한 요새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변방 벽지였던 만큼 노상추가 부임한 정조 11년(1787) 7월 당시에는 여러 시설들이 퇴락한 상태였다.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지나지붕은 잡초가 무성하고 동헌도 무너져 내린 상태였던 것이다.⁸⁹⁾ 그도 그럴 것이 노상추가

78)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5월 14일.

79)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8월 13일.

80)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10월 22일.

81)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9월 19일~21일.

82)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9월 12일 ;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1월 27일 ;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9월 24일.

83)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8월 28일 ;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1월 5일.

84) 조선후기 함경도 정예 기병병종인 친기위의 창설과 운영에 대해서는 姜錫和, 1997, 「朝鮮後期 咸鏡道の 親騎衛」, 『韓國學報』 89가 참조된다.

85)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8월 22일~9월 5일.

86) 『비변사등록』 정조 13년 8월 20일.

87)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8월 24일~9월 5일

88)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6월 21일·12년 12월 18일, 13년 6월 21일·12월 19일.

부임했을 당시 동헌 건물의 상량문에 기록된 것에 따르면 동헌 건물은 70여년 전인 숙종 37년(1711)에 지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⁹⁰⁾

바야흐로 관사를 증건하기 위해 박동현(朴東顯)을 시켜 좋은 날을 잡게 하니, 벌목은 이 달 11일, 옛 관사를 부수는 날은 이달 21일, 개기(開基)는 2월 28일, 정초(定礎)는 3월 초 10일, 입주(立柱)는 같은 달 16일, 상량(上樑)은 같은 달 28일이다.⁹¹⁾

이에 노상추는 부임 이듬해인 정조 12년(1788) 1월부터 관사를 수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우선 그는 1월 6일 위와 같이 벌목에서부터 상량에 이르기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뤄졌으나, 서까래와 판벽공사 등 마감작업까지 포함해 6월 11일까지 삼문루, 내동헌, 외동헌, 창고 등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었다.⁹²⁾ 공사를 진행하는 기술과 노동력은 모두 진동보 관할 하의 백성과 토졸들 중에서 동원되었다.

목수(木手)의 경우 토교(土校) 김찬룡(金贊龍)·김덕신(金德信), 사민(社民) 김홍수(金弘秀)·이복금(李福金) 등이 맡았다.⁹³⁾ 이어서 노동력 동원과 관련해 토졸(土卒)들의 경우 현재 파수처로 입방하거나 통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을 제외한 사람들 중 노소를 막론하고 9명씩 패를 지어 9패로 나누어 공사에 참여하게 했다.⁹⁴⁾

토졸 이외에 인근 지역 주민들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주로, 진동보의 환곡을 분급받은 환민(還民)들이 공사에 동원되었다. 허천/성후/돌모로/노평 등 인근 지역의 환민(還民)들은 마을 단위로 동원되어 부역에 참여했다.⁹⁵⁾ 최종적으로 환민(還民)들은 여섯 차례 역(役)에 동원되었다.⁹⁶⁾

이날 공사를 마쳤다고 양영(兩營)에 보고하였다. 공해(公廩)는 동헌(東軒)이 14주(柱) 8칸에 부연(婦椽)이 있고, 내아에는 관청(官廳)도 함께 있는데 14주(柱) 8칸이며, 동헌 삼문(三門)은 12주(柱) 6칸에 화판(花板) 부연(婦椽)이 있으며, 객사(客舍)의 삼문(三門)은 12주(柱) 6칸이다. 천자고(千字庫)는 12칸이며, 지자고(地字庫)는 12칸이며, 현자고(玄字庫)는 10칸이며, 황자고(黃字庫)는 8칸인데 모두 15자(尺)의 긴 용마루를 사용하였다. 하인청은 14주(柱) 8칸이며, 군작청은 21주(柱) 12칸이며, 마굿간은 6주(柱) 2칸이며, 공고(工庫)는 6주(柱) 2칸이다. 도합 104칸이다.⁹⁷⁾

이상의 작업이 진행된 결과, 관사(官舍)에 대한 정비는 정조 12년(1788) 6월 11일을 끝으로 완료되었다. 그 결과 동헌, 객사, 창고, 마굿간, 하인청, 군작청 등의 여러 공해(公廩)가 새롭게 마련되었다.⁹⁸⁾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노상추는 지붕 수리, 널빤지 공사, 관사 단청

89)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7월 17일·18일.

90)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2월 17일.

91)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1월 6일.

92)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1월 6일~4월 3일.

93)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2월 17일.

94)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3월 7일.

95)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3월 3일·4일·5일.

96)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4월 18일.

97)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6월 11일.

98) 『안강노씨족보』 권1, 「先考西山窩府君家狀」. 노상추의 아들인 노익엽이 지은 노상추의 가장에 따

공사 등 추가적인 보수를 실시하였다.⁹⁹⁾

노상추는 관아 시설 뿐 아니라 성곽 시설에 대한 정비도 실시하였다. 성곽에 대한 공사는 주로 토졸들을 동원하여 이뤄졌다. 우선, 정조 12년(1788) 9월 노상추는 파방 점검이 끝난 후 토졸들을 통원해 진동보 북서측면의 성곽을 축성하였다.¹⁰⁰⁾ 이듬해인 정조 13년(1789) 4월과 윤5월에는 서문과 남문을 수리하고 남문쪽으로만 진동보로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 공사를 실시하였다.¹⁰¹⁾

공사를 진행하는데서 토졸들이 주로 동원되었기에, 그들은 과도한 부역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정조 13년 윤5월 토졸들은 노상추가 관청 건물을 짓는데 과도하게 부역을 하였다 는 내용의 소장을 갑산부사에게 올리기도 했던 것이다.¹⁰²⁾ 하지만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상추는 자비(自費)를 일정 부분 할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에 따라 공사를 완수하고 포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¹⁰³⁾

이처럼 노상추는 다양한 군사활동을 시행했으며 특히 관방시설의 정비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한편으로 당시 함경도 내지 지역의 진보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중앙 조정의 논의에 대응해 진동보의 존속을 위해 진동보의 군사적 위상을 천명하고 그에 바탕해 일대의 관방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정조 12년(1788) 우통례 우정규는 재정과 군사 일반에 대한 여러 개편안을 정리한 『경제야언』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우정규는 『경제야언』에서 삼수와 갑산 지역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진보가 설치되어 있어 오히려 방어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하며 일대의 12진보를 6개로 통폐합 할 것을 제안했다.¹⁰⁴⁾

이러한 우정규의 제안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함경감영과 남병영에 관문을 보내 의견을 구하게 했다.¹⁰⁵⁾ 남병영은 갑산부와 삼수부를 통해 휘하 각 진보의 변장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노상추는 관할구역과 인근 지역의 여러 진보에 대한 순찰과 진동만호로서의 임무 수행 경험에 바탕해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노상추는 진동보의 중요성과 관방 개편안에 대해 20여개 조항의 단서를 기록했던 것이다.¹⁰⁶⁾

르면 이 당시 지어진 동헌에는 ‘綏遠’, 누각에는 ‘臨淸’, 관아에는 ‘勤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99)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7월 8일~13일·8월 10·11일, 정조 13년 5월 10일.

100)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9월.

101)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4월 12~15일·윤5월 11일.

102)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윤5월 6~7일.

103) 『노상추일기』 정조 12년(1788) 6월 21일 ; 『노상추일기』 정조 12년(1788) 12월 18일 ; 『노상추일기』 정조 13년(1789) 6월 21일 ; 『노상추일기』 정조 13년(1789) 12월 19일.

104)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6월 12일 계묘.

105)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8월 18일.

106)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8월 18일 ;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8월 28일·9월 18일.



<그림 4> 갑산부 일대의 영로(嶺路)

이 당시 노상추가 제안한 구체적인 개편안이 『노상추일기』에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노상추가 의례 참여 등 여러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을 답사하면서 정리한 여러 내용들을 통해 그 골자가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노상추는 당시 함경도 내지 일대의 영로(嶺路) 실태에 바탕해 진동보가 유사시 갑산 및 연해지역으로 남하하는 적을 막는 주요 교두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노상추는 유사시 청나라가 기병을 이끌고 갑산으로 쳐들어온다면 해산진을 경유하지 않고, 갑산 서북쪽에 위치한 무산부(茂山府)의 보다회산(浦多會山)쪽 방면으로 들어온 뒤 완항령, 설령 등의 영로(嶺路)를 지나 가을마리(加乙麻里/加乙川)에 위치한 고진동(古鎭東) 방면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¹⁰⁷⁾

또한, 그는 고진동의 경우 당시의 진동보 보다도 황토기와 쌍청을 통해 해안가의 단천 등으로 나가는 영로(嶺路)와 더 인접하다며 진동보의 위치를 고진동으로 환원 것이 좋다고 정리하기도 했다.¹⁰⁸⁾ 과거에는 고진동 일대에 삼림이 무성하고 인구가 희박했지만 지금은 개간과 채벌로 진보가 들어설만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동시에 그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로 이외의 영애 지역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어 도로를 통제할 것을 아울러 제시하기도 했다.¹⁰⁹⁾

이러한 그의 제안은 당시 일대 상황에 대한 면밀한 이해의 기반 위에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후반 이후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설령로(雪嶺路)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18세기 후반 갑산과 무산 사이를 연결하는 완항령과 허항령 등의 영로(嶺路)가 개발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노상추의 제안은 당시 사용되던 영로를 중심으로 관방

107)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8월 21일.

108)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8월 13일.

109)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8월 13일.

을 재편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¹¹⁰⁾

끝으로, 그는 정조 13년(1789) 함경도 위유어사가 일대 진보의 폐막에 대해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해 진보 인근 지역의 토졸들은 모두 진보에 전속시킬 것을 제안했다.¹¹¹⁾ 이는 변방 진보의 경우 토졸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18세기 이후 요충지 군현에 소속 양정(良丁)을 전속(專屬)하는 독진(獨鎭)을 설치해 군병 동원과 관리의 효율을 추구하던 방향과 조응하는 것이기도 했다.¹¹²⁾

이러한 노상추의 진동보 및 일대의 관방 개편안은 갑산부를 통해 중앙에 보고되었다. 갑산부에서는 진동보와 운총보가 함경도 남관 지역의 관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진동보의 이설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진동보는 중요성을 인정받고 혁파 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¹¹³⁾ 이후 진동보는 19세기까지도 그 조직이 유지될 수 있었다.¹¹⁴⁾

5. 맺음말

함경도 진동보는 17세기 후반 이후 일대의 관방정비를 통해서 함경도 남관 내지지역의 거점인 갑산의 핵심적인 방어 진보로 자리매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동보는 행정기구가 비교적 미비했던 함경도의 특성상 농업, 환곡 등 여러 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18세기 후반인 정조 11년(1787) 후반부터 정조 14년(1790) 초까지 약 31개월간 진동보의 지휘관인 만호 직임을 수행한 노상추는 일기를 통해 자신이 수행한 진동만호 및 진동보의 여러 역할과 기능들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노상추는 행정과 군사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진동만호로서 활발한 직임을 수행하였다. 그는 진동보의 민정과 관련해 환곡과 농업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그는 진동보의 관아와 관방시설의 보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당시 추구되던 함경도 일대 진보 통폐합 논의에 대응해 진동보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정리하여 보고하기도 했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18세기 후반 함경도 변방방어의 최일선을 전담했던 진보와 만호의 역할과 활동상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 함경도 지역 방어체제 및 변방 행정의 보다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면면을 이해하는 단서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편, 노상추의 이력 전반에 있어서도 진동만호 활동은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상추는 진동만호로 활동하는 중 포폄에서 세 차례 이상 상을 받고 내직(內職)으로 천진(遷轉)되었으며 이후 절충장군으로 가자되기도 하였다. 정조 연간에 진동보의 만호를 역임한 인물은 총

110) 고승희, 2005, 「조선후기 함경도 內地鎭堡의 변화」, 『韓國文化』 36 ; 노영구, 2005, 「조선후기 함경 남도 幹線 방어체제」, 『韓國文化』 36. 이는 18세기 이후 함경도 지역의 방어진략이 점차 도로망 중심의 방어체제로 정비되어간 큰 흐름에 동조 한 것이기도 했다.

111) 『노상추일기』 정조 13년 4월 4일.

112) 18세기 관방상 요충지의 獨鎭化 경향에 대해서는 배우성, 1998, 위의 책, 225~228쪽 ; 이강원, 2021, 「18세기 경기 서북부 방어체제의 재편과 장단 방어영의 파주 이설」, 『韓國史研究』 194 참조.

113) 『노상추일기』 정조 12년 10월 24일.

114) 『關北誌』(국립중앙도서관, 古 2790-7) ; 『北關邑志』(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奎 12170).

10명이었으나 이들중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내천된 관원은 6인뿐이었으며 그중에서 절충장군 이상으로 승진한 경우는 노상추뿐이었다. 이는 노상추가 이후 관직생활을 계속 이어가는데 있어서 진동만호 활동이 핵심적인 단서로 작용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이강원, 「18세기 후반 노상추의 함경도 진동만호 활동과 지역관방 정비 방안」에 관한 토론문

장정수(동북아역사재단)

발표자가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노상추일기」는 조선후기의 무관 및 군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자료입니다. 문관에 비해 무관이 남긴 기록물이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본 사료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본다면 생동감 있게 당시의 실태에 접근해볼 수 있으리라고 전망합니다. 본 발표문 역시 이 점에서 의미 있는 글이지만, 해결되어야 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확인되고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소 두서없이 질문과 지적을 번갈아 한 부분은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토론자가 오해한 지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 진동보의 위상과 중요성?

글의 제목을 보면 노상추가 진동만호로 재임하면서 지역의 관방을 정비하고자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함경남도 특히 갑산 일대의 군사체계와 진동만호의 위상을 살펴보려는 듯합니다. 2장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갑산부의 속진 가운데 해산진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진보이다. 9품 권관이 파견된 인근의 3개 진보와 달리 4품의 만호진으로 승격되었고, 갑산부의 읍치와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②백두산-갑산을 잇는 허항령로와 완항령로가 정비된 이후, 설령로·황토령로 등의 교통로와 인접한 교통의 거점이었다. 장과보의 설치 이후 무산-갑산을 잇는 교통거점이 되었다.

③칭의 군사적 위협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유사시의 침입에 대비하는 기능을 유지해야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궁금합니다.

①각주 10번의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어야 하고, 가까운 거리로 위상의 높낮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②그림에 나타난 지역의 실제 면적과 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서술입니다. 지도에 그려보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진동보를 교통의 요충지 내지 상품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변지역이라고도 했는데, 사실 장과보는 두만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산부만 하더라도 두만강이라기보다는 박가천, 허수라천

등 백두산 상류에서 발원해서 두만강으로 합쳐지는 지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진동보를 남관과 북관의 연해지역과 내지, 강변지역을 서로 연결한다고 하면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③흔한 서술이긴 하지만, 치안과 파수 등의 역할이면 모를까 외침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기능이 필요했다는 설명이 저는 좀처럼 납득되지 않습니다. 진동보에 권관이 아닌 만호를 두게 된 현종~숙종대의 논의가 이와 관련되나요? 실제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상평: 적어도 현재의 서술만으로는 진동보의 위상이나 기능, 중요성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진동만호가 宣薦 출신 가운데 체수되었다는 것은 중요해 보이지만, 900일의 근무 기한 등은 진동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노상추의 경우 근무기한을 채운 뒤에 경직으로 내친되었다고 하나, 맺음말에 의하면 노상추를 제외한 진동만호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진동보의 위상이 불투명하니, 이어진 진동만호의 임무 역시 ‘중요한 과업’이었다는 발표자의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노상추일기를 통해 본 진동보인가, 진동만호 재임시 노상추의 활동인가

3장과 4장에서는 진동만호의 임무를 일상업무와 군사업무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노상추의 일기에 나온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히 정리하고자 한 점이 돋보이며, 구도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앞의 2장과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노상추의 기록을 통해서 진동만호를 살펴 보자는 것인지, 변장으로서 노상추의 치적을 강조하고자 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2장의 내용을 보면 전자를 논하고 싶은 듯합니다. 그러나 3장의 내용은 노상추의 민정 개선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과연 진동만호의 역할 내지 임무로 일반화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기> 자료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상추가 만호로 재임한 기간에 이룬 치적들이 이후 진동보의 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모를까, 이를 군사업무와 나누어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4장의 군사업무 부분은 노상추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파수처 적간이나 인근 행인에 대한 기찰, 변장으로서의 군사의례 참여, 시취 주관 등은 진동만호의 일상적인 업무였을 것입니다. 진동보의 위상을 보여주지도, 노상추의 활동에서 특이점이 되지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나마 노상추의 치적으로 인정할 만한 퇴락 관방시설의 보수는 도리어 군사적인 면에서 진동보의 중요성이 높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산과 삼수 일대 진보의 통폐합에 대한 노상추의 의견도 <일기>에서 추출되는 내용을 최대한 분석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수공이 가지만, 발표자의 말대로 독진(獨鎭)의 설치가 진행되던 시점에 진동보의 이설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컨대, 무관 노상추의 일기에 나타난 파편적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남관-갑산-진동보의 군사제도를 살펴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노상추라는 무관의 행적을 인물사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맺음말에 대한 질문

사실 본 발표문의 맺음말은 본문을 수정하면서 재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입니다. 특히 마지막 문단은 본문에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정조 연간에 진동만호를 지낸 10명 가운데 내천된 관원은 6인, 당상관으로 승진한 경우는 노상추가 유일합니다. 이는 노상추가 무관으로서의 이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동보의 위상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 글에서는 진동보의 중요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